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 士 學 位 論 文

생태마을의 유산적 가치와
자원 활용방안
- 제주시 도두동을 중심으로 -

鄭 順 年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自 然 · 文 化 遺 産 教 育 學 科

2023年 8月



생태마을의 유산적 가치와 자원 활용방안

- 제주시 도두동을 중심으로 -




指導教授 張 承 姬

鄭 順 年

이 논문을 사회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3年 7月

정순연의 사회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정 광 중	
위 원	장 승 희	
위 원	곽 병 현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2023年 7月



Value of Eco-village heritage and
Utilization plan with the resources
- Focus on Dodudong in Jeju city -

Sun-Yeon J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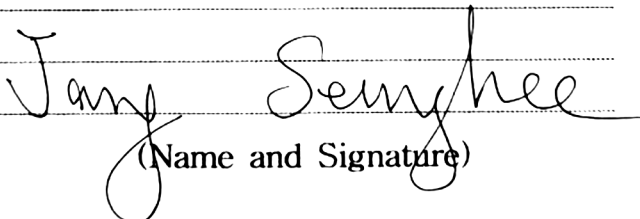
(Supervised by Professor Seung-Hee Jang)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Social Education [Master of Natural and Cultural Heritage Education]

2023. 7.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
Thesis Director, Jang Seung Hee,
Prof. of Natural and Cultural Heritage Education

.....

.....
(Name and Signature)

.....
Date

Department of Natural and Cultural Herit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SOCIAL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I. 서론	1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II. 생태마을 등장 배경과 현황	5
1. 생태환경의 변화와 위기	5
1) 생태 개념과 환경 위기	5
2) 생태마을: 생태계 복원과 노력	7
2. 제주 생태마을 현황	9
1) 제주 ‘생태관광지정제도’	9
2) 제주 생태관광지정마을 현황: 선흘1리 동백동산, 하례1리 효돈천	11
III. 생태마을로서 제주시 도두동의 역사와 자원 현황	14
1. 도두동 생태환경 변화의 역사	14
1) 마을 설립 ~ 일제 강점기	16
2) 1945년 ~ 1978년(1·2차 공항 확장)	20
3) 1979년(3차 공항 확장) ~ 1998년(공유수면매립, 해안도로, 하수처리장 건설)	22
4) 2000년 ~ 현재	24
2. 도두동의 자원 현황	27
1) 자연자원(용천수, 도두봉, 궤, 소금빌레)	27
2) 문화자원(봉수대, 진지동굴, 당, 포제단, 원담, 방사탑)	34

IV. 생태마을로서 도두동의 가치와 자원 활용방안	42
1. 생태마을로서 도두동의 가치	42
2. 도두동 자원의 활용방안	45
1) 도두봉의 지질체험	46
2) 자원탐방 및 역사체험	51
V. 결론 및 제언	61
참고문헌	63
Abstract	68

표 목차

<표 1> 국내 생태환경 정책 동향	10
<표 2> 사례를 통한 선흥1리 변화	12
<표 3> 도두동 마을공동체 현황	43
<표 4> 도두봉 체험학습에 필요한 지질용어	48
<표 5> 도두동 자원이 존재했던 지명에 대한 제주어	54

그림 목차

[그림 1] 도두동의 위치	14
[그림 2] 신석기시대 거주지 터 및 유물 안내판	16
[그림 3] 사라진 물래물(沙水洞) 마을	19
[그림 4] 이주한 신(新)사수 마을	19
[그림 5] 도두봉의 저수조, 고사포	19
[그림 6] 물래물(沙水洞) 마을 애향비	20
[그림 7] 1970년대 신(新)사수 마을	21
[그림 8] 1970년대 도두마을	21
[그림 9] 공유수면 매립 전 도두동 모습	23
[그림 10] 공유수면 매립 후 도두동 모습	23
[그림 11] 2014년 국토교통부 통계	25
[그림 12] 도두동 신(新)사수 마을복지회관	26
[그림 13] 오래물 여탕·남탕 입구	27
[그림 14] 마구물 여탕·남탕 입구	28
[그림 15] 흘캐 입구	29
[그림 16] 생이물	29
[그림 17] 1930년대 영물 여탕 보수 사진	30

[그림 18]	현재 영물 위치와 안내판	30
[그림 19]	지름물 위치	31
[그림 20]	죽은물 위치	31
[그림 21]	도두봉	32
[그림 22]	큰케물, 작은케물	32
[그림 23]	몰래물 약도의 소금밭 위치 및 현재 모습	33
[그림 24]	봉수대 터	34
[그림 25]	일제 강점기에 설치된 진지동굴	35
[그림 26]	진지동굴 입구 및 안내판	35
[그림 27]	오름허릿당	36
[그림 28]	홀캐 본향당	37
[그림 29]	왕돌과 할망당 안내비(碑)	37
[그림 30]	스득모실당	38
[그림 31]	마을 포제단	38
[그림 32]	방사탑 2기	39
[그림 33]	기건목사의 구질막(救疾幕) 터	39
[그림 34]	요매기 원담 및 안내판	40
[그림 35]	용천수 분포	51
[그림 36]	개발 전(1970~1980) 도두동 약도	53

【국문초록】

생태마을의 유산적 가치와 자원 활용방안

- 제주시 도두동을 중심으로 -

정 순 연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자연·문화유산교육학과

지도교수 장 승 희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는 생태환경은 물론 인류의 생존 위기를 가속화시키며, 오늘날 다양한 영역에서 경고음을 보내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 인류적인 환경 선언과 협약에도 불구하고 실천이 더딘 이유를 연구자는 현대사회의 제반 문제에서 찾아보았다. 현대사회는 가족 구조의 변화로 인한 인간 소외 현상,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개인주의의 만연, 이기심에서 비롯된 생태환경의 파괴, 그로 인한 기후변화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생태환경의 파괴와 기후변화는 머지않아 지구에서 인간이 살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어질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연구자는 II장에서 현대 생태환경의 변화와 위기의 심각성을 제시하였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생태마을 만들기’의 등장 배경과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다. 전 세계적으로 생태환경의 변화와 지속 가능한 삶의 대안으로, 1960년대부터 유럽에서 시작된 ‘생태마을 만들기’는 1996년 이스탄불에서 열린 제2차 유엔 인간 정주 회의(Habitat II: The Second United Nations Settlements)에서 하나의 방안으로 제정되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었으며,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게 되었다. ‘생태마을 만들기’ 초기에는 인구 절벽을 겪고 있는 농촌에서 시작되었으나, 지역적 여건, 자연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결국 제도적 보완과 마을공동체를 활용하는 ‘생태관광지정제도’로 관리 운영하고 정착하는 과정에 대해 피력하였다.

이러한 제도를 바탕으로 III장에서는 생태마을로서 제주시 도두동의 역사와 자원 현황을 살펴보았다. ‘생태관광지정제도’를 통해 마을공동체를 회복하고 마을 자원을 보존해야만 하는 이유를 남아있는 자원을 통해 알아보았다. 특히 도두동은 공항 건설과 개발로 인하여 마을이 완전히 사라지고 해체되었다가 다른 마을로 구성되었다. 이는 전국 어디에서도 예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도두동의 생태환경의 변화와 역사를 크게 네 시기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그러한 과정을 겪으며 마을의 변화과정과 그 안에 존재하였던 자연·문화자원이 사라지고 변형된 예를 비교 분석해보았다. 아울러 지금까지 현존하는 자연·문화자원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사라지고 있는 마을 자원을 보존하고 계승할 수 있는 방안으로, IV장에서는 마을공동체 회복과 자원의 교육적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을 자치역량을 기르고 지속적으로 계승한다면 더 이상의 훼손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연구자는 현지답사와 마을지(洞誌), 옛 고서를 통하여 도두동의 변화과정을 시대별로 정리하였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금 거주하는 주민들 대부분이 외지인 혹은 이주민이 많아 다소 어려움을 겪었으나, 현재 활동하고 있는 마을공동체를 통한 연계로 최대한 근접하려고 노력하였다. 아울러 제도적인 뒷받침을 위한 지자체와의 연계 관계에 대해서도 주민자치센터와 정보화 마을 관계자분들과 면담을 통해 기록하려고 하였다.

이런 부분들이 제주도 해안가 마을을 연결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어 생태환경과 마을공동체가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본 연구가 활용되기를 바란다. 나아가 도두동 사례를 바탕으로 제2공항과 중산간 개발 등에 대해서도 성찰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더불어 생태환경과 환경문제에 대한 경각심, 제주의 생활문화와 문화 유산적 자산에 대해서도 관심이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주제어: 생태환경, 생태관광지정제도, 생태마을, 도두동, 자연·문화자원

I. 서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약 45억년 전 우주의 빅뱅 이후 행성들의 생성·팽창·소멸의 우주사에서 지구를 포함한 태양계가 형성되었다. 생물체와 비생물체가 균형있게 존재해 왔던 지구에서는 더 이상 인간 중심의 공생이 어려워지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 과학기술의 발전과 경제적 풍요로움의 이면으로, 사회문제·환경오염이 나타나면서 인간 생존은 위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위기 극복을 위해 전 세계는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유엔 인간환경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를 시발점으로 1992년 브라질 리우선언에서는 스톡홀름선언을 재차 확인하였고,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하여 온실가스의 방출을 규제하는 유엔기후협약을 채택하였다. 특히 1997년 교토의정서에서는 최소한 5.2% 이상 줄일 것을 규정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되었고, 파리협약(2016)이 체결된 후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는 국가는 많지 않았다.

이처럼 참여율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지속적으로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이유는, 지구온난화 같은 기후 변화가 지속된다면 5,500년 전의 뜨거운 상태로 회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결국 지구 행성 어디에도 인간이 살 수 있는 공간은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 현실화 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¹⁾

이에 대안적 노력 중 하나로 주목해 볼 만한 것이 ‘생태마을 만들기’이다. 이는 1996년 이스탄불에서 열린 제2차 유엔 인간 정주 회의(Habitat II: The Second United Nations Settlements)의 내용 중, 지구 환경보전을 위한 지속 가능한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제시한 것이다.²⁾

이에 앞서 제임스 러브록(James Lovelock)은 1972년 ‘가이아 이론(Gaia theory)’을 통해 생태환경의 변화 요인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제시하였다. 인류 초기에는 쟁기와 동력·쇠사슬·농부와 농장주가 지구생명체를 파괴하는 주범이었

1) James Lovelock(2008), 이한음 역, 『가이아의 복수』, 서울: 세종서적, p.21.

2) 손병웅(2009), 「지속가능 유기농업과 생태적 삶을 위한 생태마을 조성」,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

으며, 현대에는 화학물질이나 폭탄·컴퓨터·원자폭탄과 수소폭탄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쓰이고 있다고 하였다. 가이아는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쓰이지 않고, 미래의 대체 에너지로 활용된다면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지속 가능한 삶은 현대와 미래 세대의 혜택을 위한 환경 보호·사회복지·경제번영이라는 세 가지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하나로 통합하려는 노력이라고 하였다.³⁾

생태마을의 연원을 보면 덴마크를 선두로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1994년 전 세계 네트워크(GEN: Global Eco-village Network)가 결성되었고, 이후 우리나라도 동참하며 생태마을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인 가족의 증가에 따른 가족 구조의 변화,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개인주의의 만연, 인구 절벽으로 인해 일부 지방 소멸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생태마을 만들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이를 극복하기 위해 농촌 마을을 중심으로 마을 공동체 회복과 생태환경을 활용한 대안을 찾고자 노력하기 시작하였고, 1990년대 초반부터 각 지자체별로 농촌 체험 마을, 환경 보전형 주거단지, 생태마을 등의 형태로 정책을 시행하기에 이르렀다.⁴⁾ 이러한 마을 만들기의 목표는 개발을 최소화하고 생태환경을 보존하여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공간 만들기이며, 이는 마을 자원을 활용하여 공동체 회복에 중점을 두는 것이었다. 2010년 이후 환경부에서는 생태관광 지정 제도를 통한 ‘생태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였다. 제주도에서는 선홍 동백동산, 하례1리 효돈천, 저지1리가 지정되었으며, 지금까지 마을 공동체에 의해서 주체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생태관광 지정제를 통해 생태마을로써 보존해야 할 마을로 도두동에 주목하고자 한다. 도두동을 선정한 이유는 개발과 공항 건설로 마을공동체가 파괴되고 해체되었던 유일한 마을이고, 해안가에 위치해 제주도의 지리적 특색인 용천수·오름 등이 잘 남아있으며, 무엇보다 관광객의 증가로 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독특한 문화와 생태환경을 보존하고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대안과 이를 통해 마을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3) James Lovelock(2008), 이한음 역, 앞의 책, pp.12-24.

4) 손병웅(2009), 앞의 논문, pp.7-8.

이 연구를 통해 연구자는 제주도 해안가 마을의 특성을 바탕으로 자원의 다양성과 보존 가치에 대한 당위성을 제공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제2공항 건설이 도두동의 사례와 같이 한순간에 마을이 사라진다면 한번 파괴된 생태환경과 생활 유산은 되살릴 수 없다는 배경을 이해하는 데 의미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지구 곳곳에 나타나는 이상 기후 현상들과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것들의 근본 원인이 기후변화라는 점은 자연 속의 인간이 사실은 매우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 준 사건들이었다.⁵⁾ 그렇기에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사회에서 생태환경 담론이 더욱 활발하게 논의되어야 할 시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자는 생태환경 담론과 맥을 같이하는 차원에서 생태마을에 초점을 맞추어 보았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생태마을의 유산적 가치와 자원 활용방안을, 제주시 도두동을 사례로 살펴보려 한다. 구체적인 연구 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태환경의 변화 과정 속에서 지속 가능한 삶의 대안으로 생태마을의 배경과 현황을 살펴본다. 전 세계적인 생태환경 복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이기심과 만연한 개인주의는 우리의 생태환경을 더욱더 악화시켰다. 하지만 미래 세대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는 바로 지금, 이에 대한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대안의 방향성은 생태환경과 인간의 공생에서 찾아야 하며, 구체적 사례로 생태마을을 들 수 있다. 관련하여 II장에서는 생태마을의 등장 배경과 현황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생태환경에 관련된 서적 및 연구물들, 환경오염에 대한 기사 및 옛 문헌들을 참조하여 연구를 실행하였다.

둘째, 생태마을로서 제주시 도두동의 역사와 자원 현황을 살펴볼 것이다. 생태환경과 인간의 공생을 위한 대안으로 연구자는 생태마을에 초점을 맞추었다. 구

5) 강호정(2005), 『다양성을 엮다: 파괴 앞에 선 인간을 위한 생태계 가이드』, 서울: 이음, pp.7-9.

체적으로 제주도의 생활문화를 잘 간직하고 있었으나, 공항으로 편입되며 마을공동체가 사라지고 파괴된 대표 마을인 제주시 도두동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현재까지도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하다. 이는 제주도의 고유한 자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곧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다. 그렇기에 자연과 문화 자원을 보존하고 계승하여 제주도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제주시 도두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관련하여, III장에서는 생태마을로서 제주시 도두동의 생태환경 변화의 역사, 그리고 자연과 문화 자원의 현황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도두동과 관련된 서적 및 연구물들, 마을 자원에 대한 기사 및 문헌 자료들을 2021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실행한 답사, 마을에 대한 관계자와 주민들과의 면담 등을 참조하여 연구를 실행하였다.

셋째, 생태마을로서 가치를 살펴본 후, 그에 따른 자원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관련하여, IV장에서는 생태마을로서 도두동의 가치를 살펴본 후, 도두동 자원의 교육적 활용방안을 제시해 본다. 교육적 활용방안은 구체적으로 도두봉의 지질체험, 자원탐방 및 역사체험으로 나누어 제시한다. 이를 위해 생태환경과 관련된 교육 서적 및 체험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한 연구물들, 2021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실행한 답사에서 얻은 자료 등을 참조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II. 생태마을의 등장 배경과 현황

1. 생태환경의 변화와 위기

1) 생태 개념과 환경 위기

‘생태(生態)’의 사전적 의미는 “생물이 태어나 살아가는 모습”이고, 영어로는 ‘ecological’, ‘eco’, 라 하며, 여기에서 eco란 그리스어 ‘oikos’에서 온 말이다. 좁은 의미로는 ‘집’, 넓은 의미로는 모든 생물의 집인 ‘지구’를 뜻한다. 지구의 생태환경은 지구 안에 사는 인간을 비롯한 생물과 비생물을 포함한 모든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상호작용을 하는 물리적 환경의 총체이다. 인간을 둘러싼 삶의 조건을 환경이라 한다면, 삶의 장소인 거주지의 체계성을 ‘생태계(ecosystem, ecological system)’라 한다.

1930년에 클래팸(Arthur Roy Clapham)이 ‘생태계’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고, 1935년에 영국의 텐슬리(George Tansley)는 동물들이 식물에 의존할 뿐만 아니라 식물도 여러 가지 형태로 동물에 의존하며,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음을 밝히며, 본격적으로 대중화되기 시작하였다.⁶⁾ 여기서 말하는 ‘생태계 원칙(ecosystem principles)’은 전 우주에 이르기까지 모든 규모에 골고루 적용될 수 있는 속성으로 이해되었다.⁷⁾ 결국 생태계의 모든 생명체들은 동등한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나, 인간은 이를 부정하여 생존을 위한 명분으로 생태계의 균형을 파괴해 나가기 시작했다.

인류의 전통농업은 자연의 시간과 유기적 성장의 주기에 의존하며, 모든 일과는 자연스럽게 태양의 움직임과 계절의 변화에 따라 바뀌었다.⁸⁾ 그러나 산업혁명명은 숲을 베어내고, 야생동물들을 멸종시키고, 늪의 물을 빼서 들판에 물을 대고, 강을 댐으로 막고, 수십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철로를 놓고, 고층빌딩이 즐비

6) 홍성태(2004), 『생태사회를 위하여』, 서울: 문화과학사, pp.14-15.

7) 박호성(2012), 『자연의 인간 인간의 자연』, 서울: 후마니타스, pp.54-55.

8) Yuval Noah Harari(2014), 『Sapiens: a brief history of humankind』, 조현욱 역, 『사피엔스: 유인원에서 사이보그까지, 인간 역사의 대담하고 위대한 질문』, 파주: 김영사, pp.495-498.

한 거대도시를 건설했다. 과거에 푸른색과 녹색이던 지구를 콘크리트와 플라스틱으로 가득 차게 만들었다.⁹⁾ 그 결과 대기오염으로 1952년 영국에서는 석탄 매연과 심한 안개, 무풍상태와 기온역전이 겹쳐 3개월 사이에 8,0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식물이나 농작물이 고사 되는 등의 피해를 입혔다. 1986년 4월에는 러시아 프리파야트시에서 약 4km 떨어진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4호기가 폭발하여 방사성 물질이 분출하였는데, 주변 10km 내 지역의 어린이 20%가 갑상선 피폭을 받았고, 그 중 5% 이상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또한 방사능으로 인한 토양 오염은 30년 이상 지속되어 우크라이나 지방에 장기적으로 큰 피해를 주고 있다. 그 외,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는 해수면 상승으로 나우루와 몰디브 등의 섬나라들이 사라질 예정이며, 베니스를 필두로 수많은 해양 도시들과 그에 포함된 귀중한 문화유산도 머지않아 바다에 잠기게 되었다. 또한, 지구 각 지역에 기상 이변이 심해져 전 세계의 해안선과 많은 육지평야에 염해(鹽害)와 해일(海溢)이 발생해 도시나 농경지의 큰 피해가 크게 나타나고, 관련하여 각종 전염병의 발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비드 웰러스는 기후재난 시나리오로 살인적인 폭염, 빈곤과 굶주림, 집어삼킨 바다, 치솟는 산불, 가뭄으로 수자원 약탈, 황폐해질 해양 생태계, 마실 수 없는 공기, 존재도 몰랐던 질병의 전파, 경제 붕괴, 자원전쟁 등 사회시스템의 붕괴로 현대 상황을 피력했다.¹⁰⁾ 기후 온난화에 대한 경고 또한 ‘가이아 이론’에서 과학적인 통계를 통해 증명된 바 있다.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지구의 생존은 30년도 채 유지되지 못할거라 예측하며, 미래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연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다.¹¹⁾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전 세계적으로 국제 협약을 통한 생태계 복원을 위한 대안을 찾고 있으며,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결국 미래 인간의 생존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1970년 대의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 도시의 집중화와 농촌의 해체, 환경오염의 피해를 빚겨갈 수 없게 되었다. 특히 환경오염은 여름철 집중호우, 산사태와 산불, 북극 기류의 변화로 인한 겨울철

9) Yuval Noah Harrari(2014), 위의 책.

10) David Wallace-Wells(2020), 김재경 역, 『2050 거주불능지구』, 서울: 추수밭.

11) James Lovelock(2008), 이한음 역, 『가이아의 복수』, 서울: 세종서적, pp.21-239.

한과, 미세 플라스틱 오염, 남해안 양식장의 적조 등,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1990년대 이후 생태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활발히 일어났다. 특히 농촌 공간은 급격한 물리적인 성장과 쇠퇴를 경험하면서 농촌주민의 이농과 겸업화, 비농업인 신규 주민의 유입 등, 다양한 변화를 보이게 되었다. 이 때문에 농촌 공간에 대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 관련 논의가 시작되었다.¹²⁾ 이에 따라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건강하고 생산적인 농촌 공간 구성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보다 구체적인 환경친화적 농촌 개발전략을 연구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 생태마을: 생태계 복원과 노력

생태마을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과 자연 또는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삶을 지향하는 마을,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 주변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오염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조성되는 마을”¹³⁾이다. 생태마을은 전 가구가 유기 농업을 중심으로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연에너지 사용,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비현실적인 계획이나 기술을 배제하고, 실현 가능한 목표로 자연경관과 문화에 대한 보존적인 그리고 생태학적인 통합을 최대화하며, 습지를 특별 관리하는 환경친화적 주거지를 만드는 것이다.

1960년대 덴마크의 ‘Co-housing Community’는 20~30가구가 유기 농업을 중심으로 태양에너지, 풍력 발전설비, 공동 취사 등을 하며 거주하는 마을 만들기를 시작하였다.¹⁴⁾ 이후 1980년대 초부터는 독일, 영국, 미국에 도입되어 생태마을이라는 이름으로 조성하기에 이르렀고, 각국 정부도 이에 대한 지원을 적극 펼치기 시작하였다.¹⁵⁾ 결국 세계적 생태마을 네트워크가 1994년 GEN(Global Eco-village Network)으로 결성되어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유럽,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라틴아메리카까지 나라별로 퍼져나갔으며, 결국 1996년 이스탄불에서 열

12) 손병웅(2009), 「지속가능 유기농업과 생태적 삶을 위한 생태마을 조성」, 단국대학교 생명자원과학과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6.

13) 다음 지식백과, “생태마을의 사전적 의미”, <https://100.daum.net>. (검색일: 2023. 3. 28.)

14) 손병웅(2009), 「지속가능 유기농업과 생태적 삶을 위한 생태마을 조성」, 단국대학교 생명자원과학과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5.

15) 손병웅(2009), 위의 논문.

린 제2차 유엔 인간정주회의(Habitat II: The Second United Nations Settlements)에서도 세부적인 이행 권고사항 중 하나로 제정되었다.

세계적인 움직임과 같이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네트워크를 통한 외국의 사례를 통해 생태마을을 처음 도입하였다. 그 중 하나는 충청북도 보은군 마로면에 위치한 선애(仙愛)빌 마을이다. 이 마을은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명상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자본금을 모아 건물과 창고, 식당, 명상센터, 대안학교 등을 지어 공동체 생활을 한다. 재래식 화장실을 이용한 생태 화장실, 버려지는 나무와 종이 등을 이용한 화목보일러 등, 최대한 자연을 그대로 이용하며, 생활한다. 공동체를 구성할 때 기부금은 달랐지만 자산은 공동소유로 하여 주민으로서의 권한은 동등하다는 것을 전제로 구성하였으며, 자산의 안정성을 위한 유한회사라는 법적 형태를 만들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 이 외에도 ‘폴무학교’라는 유기농업을 통해 마을을 중심으로 공동체 생활을 하는 흥동마을·변산공동체·민들레공동체 등이 있다.¹⁶⁾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생태마을은 도입 초기에는 외국의 사례와 비슷한 개념으로 구성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공동체의 자체적인 운영은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 결국 일부 운영이 잘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그리 활성화되지 않았다. 이는 점차 도시 지역에 편중되었던 환경문제가 농촌에서 농산물 및 수자원, 토양오염 등 다양하고 규모가 광대하게 나타나게 됨에 따라, 21세기에 적합한 새로운 지역 농업 발전 모형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에 따른 대안의 하나로 제시된 것이 ‘생태마을 만들기’이다. 이 또한 초기에는 공동체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생태마을들이 대상 지역 선정, 자연환경 변화, 관리 운영에 관한 방안 등이 미비한 상태에서 진행되다 보니, 경제적 소득증가만 지나치게 추구하거나 본래의 취지에는 벗어난 유명무실한 생태마을이 생겨나기도 했다. 이런 시행착오를 겪은 후 국가에서는 생태관광지정제도를 통하여 공공기관, 마을공동체, 마을 자원을 이용한 ‘생태마을 만들기’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제주도 또한 이 제도를 이용해 생태환경을 보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특히

16) Tosha Joubert-Leila Trager 공저(2018), 『세계 생태마을 네트워크』, 넥스트젠코리아에듀케이션 역, 서울: 열매하나, pp.47-85.

세계 자연·문화 유산에 지정된 섬으로의 가치를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한라산·용암동굴·오름 등을 특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해안가를 중심으로 펼쳐진 경관과 제주도의 독특한 생활방식은 세계적으로도 주목받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와 부합하는 도두동은 용천수가 풍부하고, 해안가를 따라 오름과 자연·문화 자원이 잔존하고 있으며, 지금도 관광지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부터의 해양 환경오염은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며, 지역주민들의 삶에도 피해를 주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보더라도 방지대책과 건강한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 장치는 꼭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통해 마을 자원을 지역주민이 자체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역량을 길러주고, 아울러 마을공동체를 회복하여 다음 세대에까지 지속 가능한 보존 및 계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어야 할 것이다.

2. 제주 생태마을 현황

1) 제주 ‘생태관광지정제도’

우리나라에서 생태라는 말을 행정적으로 처음 쓴 시기는 1997년 ‘자연환경보전법’ 생태관광 육성조항을 신설하면서부터이다. 2008년 자연환경 해설사, 문화관광 해설사 조항을 신설하였고, 2013년 생태관광협회 설립에 관한 조항을 신설, ‘생태관광지정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제주 동백동산 습지를 비롯해 전국 20개 지역을 지정하였고, 2018년 제주 저지곶자왓 포함 6개소가 추가되면서 2022년을 기준으로 총 26개소가 전국적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해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 또한 ‘생태관광지정제’라 함은 환경적으로 보전 가치가 있고 생태계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지정 주체는 환경부이며, 이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를 근거로 공모를 통해 생태관광 지역지정제를 운영하고, 관리주체는 기초자치단체 및 지역협의체에서 하게 되어

있다. 법적 요건으로는 환경적으로 보전 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지역 중심 대상이며, 대상지 내 시설 및 운영 프로그램 등을 포괄적으로 묶는 형태를 말한다. 또, 자연·생태자원이 있는 보호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잠재적 보호 가치가 있거나 도시 내에서 상대적 보전 가치를 지니고 있는 지역도 대상에 포함되는 범위로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¹⁷⁾

<표 1> 국내 생태환경 정책 동향¹⁸⁾

국내 생태관광 정책동향(년도별)	
1997	<자연환경보전법> 생태관광조항 신설 : 생태관광이 “생태적으로 건전한 관광” 으로 정의됨. 생태관광에 필요한 교육, 생태관광자원조사·발굴, 시설의 설치·관리 계획 수립·시행
2004	<자연환경보전법> 생태관광 육성조항에 생태관광지 지정 관련 내용 추가 : 환경부장관은 환경사적으로 보존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음을 명시함
2008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해설사/<관광진흥법> 문화관광해설사 조항 신설 : 자연환경해설사는 홍보, 교육, 생태탐방안내 수행, 문화관광해설사는 역사, 문화, 예술, 자연해설
2013	<자연환경보전법> 생태관광협회 설립에 관한 조항 신설, 생태관광지역 지정제도 도입 : 제주동백산습지, 순천만 등 20개 지역 지정
2014	세계생태관광 성공 모델 4개 마을 지정 및 육성 계획 발표 : 고창 용계마을, 신안 영산도, 인제 생태마을, 제주 효돈천
2015	지자체별 생태관광제도 수입 시작 : 제주도 생태관광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정, 제주 생태관광지원센터 설립
2018	생태관광지역 6개소 추가 지정 → 총 26개소 관리 : 철원·DMZ 철새도래지, 정읍·월영습지와 솔티숲, 영양·밤하늘·반딧불이 공원, 김해·화포천 습지 일원, 밀양·사자평 습지와 재약산, 제주·저지 꽃자왈과 오름

이런 조건으로 제주도 환경정책과에서 발표한 내용을 통하여 생태관광지역의

17) 환경부, “생태마을 현황”, <https://www.me.go.kr>. (검색일: 2023. 3. 14.)

18) 위의 자료

평가 기준을 살펴보면, 첫째 자연 생태적가치, 둘째 시설의 생태적 설계, 셋째 환경과 지역문화의 이해, 넷째 지자체의 추진 의지와 기반, 다섯째 장단기 보전·관리 전략이 가능한 지역을 선정하게 되었다. 제주도는 자연환경보존법 제41조(‘13. 3 생태관광지정제’)에 의거하여 2013년 지정된 선흘 동백동산 습지를 포함한 선흘1리, 2014년 하례1리 효돈천, 2018년 제주 저지곶자왈과 저지오름을 포함한 저지리 마을이 현재 지정되어 자연보전과 함께 관광객, 지역주민, 자연환경에 긍정적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¹⁹⁾ 이러한 사례를 기준으로 마을 자원과 공동체의 활용, 지정과정, 운영방식 등을 알아봄으로써 도두동의 타당성을 피력해 보고자 한다.

2) 제주 생태관광지정마을 현황: 선흘1리 동백동산, 하례1리 효돈천

제주도에서 맨 처음 지정된 ‘동백동산’ 습지를 포함한 선흘1리²⁰⁾는 1971년 제주기념물 10호로, 1973년 제주도 기념물 제18호(백서향 및 변산일엽군락 보호구역)로 연이어 지정되어 국가에 수용되었다. 2011년 램사르습지로 선정되면서 재산권 피해나 개발 제한으로 불편해지면서 지정 초기에는 마을 주민들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램사르습지 지정 후 이 부분을 해결하고자 정기적인 마을 공동체 모임을 하고자 하였으나, 지역주민들의 호응이나 모임을 동원하기가 힘들었으며, 인식 또한 개선되지 않았다. 이때 각 마을에 구성된 단체를 활용해 여러 차례 모임과 소통을 이루어내, 결국 마을공동체를 이용한 관리 방법과 동백동산을 중심으로 마을 만들기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교육이나 체험활동 해설사 등의 구성원은 모두 마을 주민을 위주로 공동 운영하며, 수익의 70% 이상을 마을로 환원하였고, 이익의 10%를 환경보전 기금으로 환원한다는 원칙도 마련했다.²¹⁾ 국립습지센터와 습지 생태프로그램을 시작으로 2013년에는 지역주민과 환경 단체, 제주도 환경담당자와 그 외 전문가들로 구성된 비영리 단체 ‘선흘1리

19)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 자료실, <https://www.jeju.go.kr>. (검색일: 2023. 3. 21.)

20) 제주시 조천읍 선흘1리 산12번지(마을포함 약 1968.8ha)에 위치 해 있으며, 동쪽은 구좌읍 동북리, 서쪽은 대흘리, 남쪽은 교래리, 북쪽은 북촌리와 각각 접하고 있다.

21) 최현(2017), 「선흘1리 마을만들기와 공동자원의 지속가능성」, 『Eco』, 21(1), pp.41-69.

생태관광 시범 마을 추진협의체(이하 생태관광협의체)를 구성하였고, 2014년부터는 동백동산 습지센터를 건립하여 2015년부터 생태관광협의체에 위탁 운영하였다.

그 결과 지속 가능한 마을 만들기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인 마을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프로그램 진행하는 과정에서 끊어지고 사라졌던 마을 축제가 다시 되살아나는 효과가 나타났다. 참여하는 인원 또한 2013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2015년에는 약 3,000명에 달했다. 또 하나의 큰 변화는 한때 폐교가 될 위기에 처한 학교가 30~40대의 유입 인구의 증가로 폐교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표 2> 사례를 통한 선홍1리 변화

	슈퍼마켓	식당	숙박시설	카페	향토체험 프로그램참가자	선홍초교
2013년 전	1곳	1곳	없음	없음		12명
2013년 후	2곳	6곳	4곳	3곳	3,271명	30명

(자료: 연구자 정리)

이는 단지 외부인들에 의한 경제적 이익만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과 인간·학교와 마을 선주민과 이주민을 이어주고, 마을 공동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공동체와 공동자원의 관계를 복원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선홍1리 마을 만들기 사업은 성공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두 번째 사례는 하례1리의 효돈천²²⁾ 생태마을이다. 하례 1리는 기존의 마을 만들기와 추진하는 방식이 달랐다. 연중 온화한 기후로 감귤재배 기술이 뛰어나 마을 사람들의 소득도 높고 경제생활도 상당히 윤택한 편이며, 감귤 농사와 관련된 협력도 비교적 잘 이루어져 마을공동체의 결속도 좋은 편이다. 이처럼 하례 1리 마을 만들기는 애초부터 지역 활성화를 위한 개발 사업이 아니었다. 오히려 하례 1리 만들기 사업의 목적은 제주도 안에서조차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하례1리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것이었다. 하례1리에 있는 효돈천은 예로부터 식수를 제공

2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의 서쪽에 위치한 마을이다. 서귀포시와 남원읍의 경계인 효돈천은 하례리 서쪽에 있으며, 효돈천 사이에 두고 상호동, 신희동, 하효동과 남원읍 하례1,2리가 접해 있다.

해 왔으며, 빨래터라는 공동모임의 공론장이 있었다. 아이들에게 효돈천은 하루 종일 놀이터의 기능을 제공하는 그런 공동체적 공간이었다. 상하수도가 보급되고, 지하수가 개발되면서 물이 줄어들어서 효돈천이라는 장소는 자연스럽게 마을 주민들과 소원 해져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효돈천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긴 마을에서는 총회를 열고 효돈천 생태 가치의 확산, 주민 공공서비스 강화, 주민 생업의 안정화라는 목표로 효돈천 트레킹코스 개발, 스토리텔링 찾기, 환경모니터링, 생태계 복원 활동, 주민역량 강화, 감귤브랜드 개발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되었다. 물론 이런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생태관광 특성상 조용한 마을 안까지 관광객들이 들어오면서 쓰레기 증가와 오염 및 사업 진행 과정의 주체로 인한 갈등도 생겨났다.

이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2017년 3~4개월 동안 청년회가 주최하는 행복마을 만들기를 통해 마을 사람 대부분을 참여하게 함으로써 생태관광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게 되었으며, 이는 마을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현재 하례리 생태관광 마을협의체가 구성되어, 생태관광 지원센터를 유치하도록 합의를 이끌어 냈고, 2018년 농촌체험휴양마을도 선정되어 2020년부터 사업이 시작되었다.²³⁾

이 두 사례는 자연의 공동자원을 경제적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함께 관리하면서 민주적 자치역량을 키우고 문화적 자부심과 생태적 감수성을 기르며 희미해져가는 지역주민의 공동체 의식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위와 같은 사례뿐만 아니라 이후 지정된 저지 곳자왈은 제주도 화산섬에 나타날 수 있는 독특한 지형으로 생태관광지정제를 통해 반드시 보존해야 할 당위성을 지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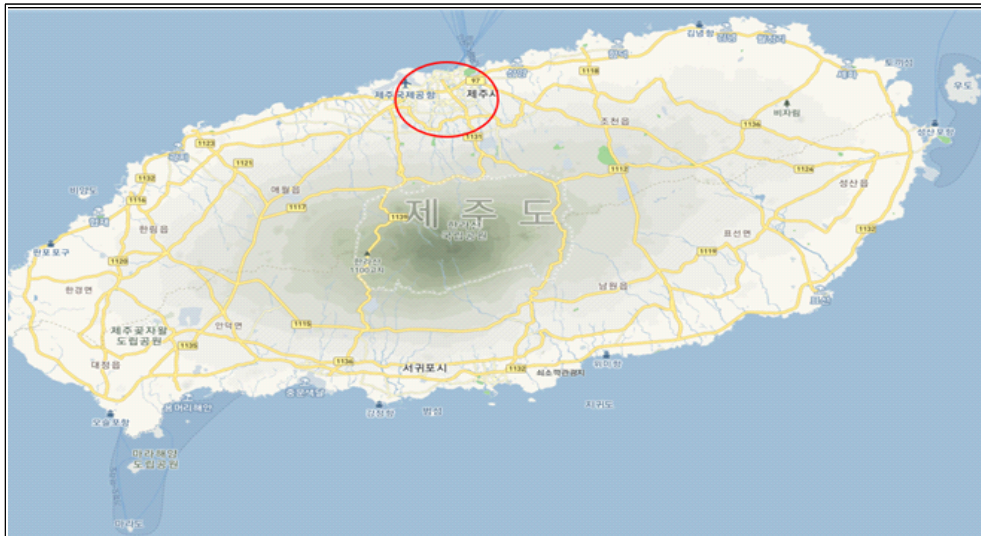
지금까지 지정된 마을들을 보면 대부분 숲이나 하천을 이용한 사례이다. 오히려 제주도의 독특한 삶의 방식과 선조들의 생활과 문화는 해안가 마을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본 연구가 도두동을 주목한 이유 중 하나도 여기에 있다.

23) 김자경·최현 공저(2020), 「공동자원을 활용한 농촌 마을만들기-제주하례1리의 효돈천 생태관광」, 『지역사회연구』, 28(1), pp.58-80.

Ⅲ. 생태마을로서 제주시 도두동의 역사와 자원 현황

1. 도두동 생태환경 변화의 역사

제주특별자치도 도두동은 제주도의 북쪽 해안가에 위치 해 있으며, 남쪽으로는 한라산을, 북쪽으로는 태평양과 맞닿아 있는 마을이다. 면적은 4.03km², 인구는 1,522세대 3,274명으로 2개의 법정동(도두1동, 도두2동)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이는 5개의 자연마을²⁴⁾과 7개 통, 27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다.²⁵⁾



[그림 1] 도두동의 위치²⁶⁾

5개의 자연마을은 해안도로와 하수처리장, 공항 건설에 따라 해체되고 사라지기를 반복하면서 생긴 마을들이며, 그러한 과정에서 마을공동체가 파괴되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다. 예전 마을공동체는 대부분 마을 자원과 자연환경을 이용한 삶의 터전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며, 도두동은 그런 자연마을 중 하나였다.

24) 5개 자연마을: 도두1동, 효동마을, 신사수마을, 신성마을, 다호마을.

25) 2022년 12월 31일 기준. <https://www.jeju.go.kr>. (검색일: 2023. 4. 8.)

26) 카카오맵, <https://map.kakao.com>. (검색일: 2023. 3. 1.)

도두라는 마을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다. 옛 문헌에 기록된 바로는 『신동국여지승람』에 ‘도도리포(道道里浦)’, 『남사일록』· 『탐라지』에는 ‘도원촌(道圓村)’, 『제주읍지』에는 ‘도두리(道頭里)’, 『탐라지도병서』와 『제주삼읍전도』에는 ‘도두촌(道頭村)’, 『제주삼읍도총지도』에는 ‘도도촌(道道村)’으로 표기되어 있다. 또한 제주 섬의 북쪽, 즉 ‘섬의 머리’에서 유래해서 ‘도두(島頭)’라고 하는 설과 제주성을 가로지르는 동서로 큰 길이라는 뜻의 ‘한길의 머리’라는 설, 도+돌(石) ‘또는’ 돌은 ‘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다.²⁷⁾

본래 제주군 중면 소소의 도두리(도두리)였는데, 1914년에 제주면에 편입되었고, 1955년 제주읍이 제주시로 승격되면서 도두1동과 도두2동으로 분리되었으며, 1962년에는 행정상 도두동으로 통합되고 법정동 도두1동과 도두2동이 되었다.

도두동은 예로부터 용천수가 풍부하여 도내 다른 지역과 달리 논농사와 밭농사가 모두 이루어졌다. 해안가임에도 불구하고 넓은 목초지가 형성되어 있어 많은 수의 소와 말을 기르는 목축업이 성행하였다. 또한 어종이 풍부하여 어업과 농업을 병행하는 가구가 많았으며, 지금은 사라진 물래물(沙水洞) 마을에서는 양잠업이나 양말공장도 있었던 것으로 보아, 풍요로운 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지역주민들은 마을 자원을 마을공동체를 통한 공동의 노력으로 유지·보수하였으며, 이를 균등하게 배분 함으로써 제주도 특유의 나눔의 미덕을 간직하고 있었던 마을이다.

이러한 공동체에 균열이 생기게 되었는데, 변화한 주된 원인은 개발과 공항 건설이었다. 그 중심이 된 도두동은 제주도 특유의 자연마을이 타의에 의해 마을공동체가 해체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마을이 사라진 예는 전국적으로 제주도가 유일하다. 육지부에서는 저수지나 댐 건설로 인해 사라진 마을의 예는 있지만 공항 건설로 완전히 사라지거나 해체된 마을은 현재까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기준으로 도두동의 변화과정을 공항 건설을 기준으로 첫째, 마을 설립과 일제강점기까지, 둘째, 해방 후부터 공항 2차 확장까지, 셋째, 3차 확장부터 1999년까지, 넷째 2000년대부터 현재까지 네 시기로 구분하여 알아보기로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도두동의 생태환경과 마을공동체, 마을 자원의 변화에 대

27) <https://www.jeju.go.kr>. (검색일: 2023. 3. 12.)

해 알아보고, 남아있는 자연·문화자원을 조사해 보고자 한다.

1) 마을 설립 ~ 일제 강점기

2009년 제주국제공항 남쪽 해발 고도 29m, 해안에서 0.89km 떨어져 있는 곳의 공사용 흙을 파내는 토취장에서²⁸⁾ 신석기시대 주거지와 수혈유구(구덩이), 용기 문 토기와 갈돌, 적갈색 경질토기 등의 유물들이 발굴되었다. 이것이 도두동에 처음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다. 지금까지 신석기 유적은 약 100여 곳에서 발견 되었지만 주거지가 발견된 예는 없다. 특히 탄소측정연대에 의하면 B.C.4700~4000 년대로 확인이 되었고, 우리나라에 신석기시대 주거지가 분포된 시기를 B.C.3500 년경이라고 본다면 신석기시대의 초기~전기에 해당하는 제주도에서 가장 오래 된 주거지라 할 수 있다.²⁹⁾



[그림 2] 신석기시대 거주지 터 및 유물 안내판 (연구자 촬영: 2021.4.3.)

발견 당시 확인된 신석기시대 생활유적은 용담동 일대에 분포한 것의 일부분이며, 이 위치가 탐라국 형성 시 제주도의 중심지일 가능성을 두고 공항 주변 마을의 조사는 계속되고 있다. 또한 이 위치가 지금의 신사수 마을의 ‘홀캐’의 남쪽과 서북쪽의 ‘뒤원’ 부근에서 ‘말물’을 마시며 살기 시작한 것이 시초라고도 하

28) 도두 1동 2162-1번지 일대

29) ‘한겨레’, (2009. 10. 22), “제주 도두동 ‘신석기 주거지’ 첫 확인”, <http://www.hani.co.kr>. (검색일: 2023. 4. 5.)

였다.³⁰⁾ 지금은 [그림 2] 의 위치에 있으며, 이는 발견된 지점이 활주로여서 동남쪽으로 이동하여 보관하고 있다.

마을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1453년에 제작된 『세종실록』으로 도두봉을 ‘道道里山/도도리매’라는 표기가 있었다. 다음으로는 1530년에 발간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도도리포(道道里浦)’와 제주목 산천편에 ‘道道里浦/도도릿개’, ‘道道里岳/도도리오름’이라는 기록이 있었다. 2007년에 발간된 마을지(洞誌)에서도 1410년에 이미(李美)라는 사람이 도두마을에 들어와 혼학을 하였다는 기록도 있고, 세종(1418년~1450년) 때 봉수대가 설치되어 운영 관리하던 관원들과 마을 주민들이 살고 있었다는 기록도 있는 것으로 봐서 조선 세종때부터 마을을 이루고 살았다는 추측이 가능하다.³¹⁾

도두봉은 마을 형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도두봉을 중심으로 남쪽 한라산 방향으로 넓은 들판이 펼쳐져 있고, 들판 중앙으로는 흘내(屹川)가 신사수 마을 바닷가까지 연결되었으며, 여기에는 몰래물(沙水洞) 마을과 다호(多好)마을이 형성되어 있었다. 몰래물(沙水洞)³²⁾마을의 토지 형태가 분지(盆地)로 되어 있어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고, 암반이 제주도 다른 마을에 비해 적어 소나 말을 기르기에 적당한 지형을 이루었다. 한때 다호(多好)마을³³⁾은 소 2백마리까지 길렀던 목장이 있을 정도로 목축업이 성행했으며, 이는 제주도 목축이 대부분 중산간 마을에 치우친 것과는 대조를 이루는 해안가 마을의 독특한 모습이었다. 도두봉 서쪽으로는 도두동이 위치 해 있고, 이 마을 곳곳에는 용천수가 분출되었으며, 이웃 마을에서 생활용수를 얻으러 올 정도로 수량이 풍부하였다.

전형적인 해안가 마을인 도두동은 평평하고 넓은 토지와 풍부한 수량으로 제주도 어느 지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농업, 어업, 목축업, 양잠업, 공업 등이 다양하게 발달한 마을이다. 비행장 시설로 인해 물의 흐름만 막히지 않았다면, 토지는 더욱 비옥하고, 제주시와 더불어 큰 시가지로 확장할 가능성이 있었던 곳이

30) 한림화 외 2명(2002), 『섬의 머리마을 도두동』, 제주: 반석출판사, pp.24-25.

31) 도두동지 편찬위원회(2007), 『도두동지』, 제주: 으뜸출판, pp.202-203.

32) 몰래물 명칭의 유래는 바다속에 몰래(모래의 제주도 방언)가 깔려 있어 부른다고 하고, 몰래 있는 곳바다 용천수가 나오는데 모래나 자갈도 나온다는 설과 1899년 전국 읍지 편찬시 지도에 모래사(沙)자에 물수(水)를 쓴 것으로 사수동(沙水洞)으로 굳어졌다는 설이 있다.

33) 한림화 외 2명(2002), 『섬의 머리마을 도두동』, 제주: 반석출판사, p.32. / 다호마을: 처음에는 인심이 후하다는 뜻으로 다위(多爲)부락이라 하였다가, 마을이 화재가 많이 나자 ‘다호’로 바꾸었다 한다.

다.

비행장은 일제 강점기부터 전쟁 준비를 위해 건설하기 시작했다. 도두동뿐만 아니라 제주도 곳곳에 비행장을 건설하기에 적합한 부지 몇 곳을 선정하였다. 넓고 평평한 지형을 이루는 대정쪽에 ‘알뜨르 비행장’, 서귀포시 안덕면에 ‘난뜨르’, 신촌쪽 ‘진뜨르’, 도두동의 ‘정뜨르’ 등이 그곳이다.³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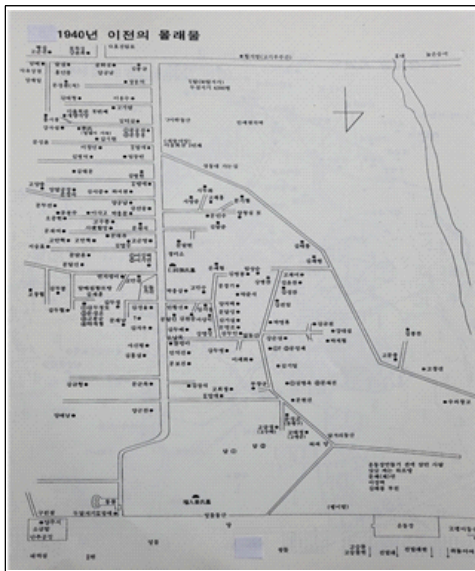
그러나 지금은 알뜨르 비행장을 제외하고는 남아 있는 비행장 건설의 흔적은 없다. 알뜨르 비행장은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기 위한 중간 연결점으로 1931년부터 건설했고, 1937년 중·일전쟁 초기 폭격기지로 사용하면서 1945년 일본 본토 결전 작전 준비 비행장으로 이용됐다. 결국 전투기 격납고 역할을 한 군용 비행장으로 실제로 중국 난징 지역을 포격하기도 했다.³⁵⁾ 그러나 이곳의 활주로는 포장 활주로가 아니라 땅을 단단하게 다진 초기 활주로이고, 길이도 1Km 남짓밖에 나오지 않아 추가시설을 짓기에는 부족하여 군용 비행장으로만 이용이 됐다.

전쟁 준비에 핵심인 비행장은 1942년부터 도두동에 건설하기 시작했다. 도두동은 예로부터 넓은 들판과 목초지가 형성되었고, 들판 한가운데에 우물(井) 하나가 있었다 하여 ‘정뜨르(정뜨르) 비행장’이라 부르게 되었다. 이로써 1941년부터 비행기가 착륙에 필요한 활주로를 만들기 위해 몰래물(沙水洞) 마을 사람들을 이주시키기 시작했다. 이를 위해 해안가 쪽으로 마을 구획정리를 하여 1차로 강제 이동시켰던 것이다. [그림 3]의 왼쪽은 현재 활주로로 건설되어 찾아볼 수 없는 몰래물(沙水洞) 마을의 약도이고, [그림 4]는 몰래물(沙水洞) 사람들을 이주시키기 위해 구획정리한 지금의 신(新)사수 마을 흘개 포구 남쪽 약도이다. 1차로 이주시킨 가구 수는 200호 중 반으로, 농지는 활주로로 귀속이 되었고, 목축업을 하던 들판도 잃어버리게 되었다. 그보다도 평생 삶을 이루고 살았던 터전을 떠나야 한다는 것과 새로운 곳에서의 시작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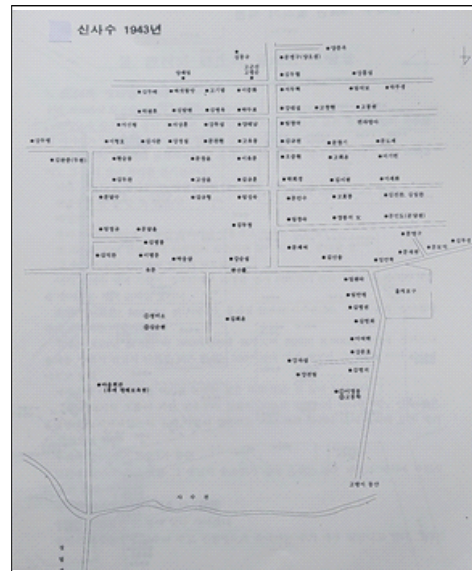
34) 진뜨르: ‘진’은 제주도어로 ‘길다’라는 뜻을 갖고 있으며 ‘뜨르’는 넓은 들판을 뜻한다. 알뜨르에 ‘알’은 ‘아래쪽’을 뜻하며,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리쪽은 ‘난뜨르’라고 하여 ‘난들’이라는 방언으로 ‘마을과 떨어진 넓은 들판’이라는 뜻이며, 이러한 지형을 갖고 있는 5군데 이상을 후보지로 선정했다. 그러나 주거지역이나 오름 등으로 활주로가 들어갈 만한 길이가 나오지 않았다는 기록도 있다. (자료제공: 제주국제공항 - 나무위키 (namu.wiki) (검색일: 2023.2.15.)

35) 현재 19기가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1기는 잔재만 남아있으며, 이 가운데 10기가 국가 등록문화재로 등록되었다.

책사업이라는 이름 아래 행해지는 공권력 행사는 당연히 이주해야 하는 사실로 받아들여야만 했다. 그나마 해안가로 이주하고 자연환경이 비슷한 마을이어서 적응은 어렵지 않았으나 경제생활은 그리 녹록치 않았다. 이주한 마을사람들 중에는 일제 강점기가 끝나면 당연히 다시 돌아갈 수 있으리라 믿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림 3] 사라진 물래물(沙水洞) 마을



[그림 4] 이주한 신(新)사수 마을³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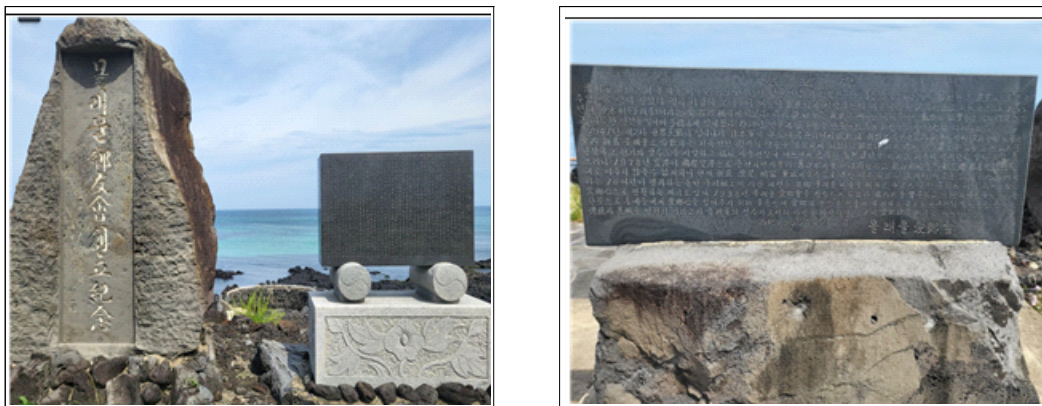
[그림 5] 도두봉의 저수조, 고사포³⁷⁾

36) 물래물향토지발간위원회, 2000, 『물래물향토지』, 제주: 한강인쇄소, pp.44-47.

37) 김승규(2018), 「도두봉의 역사와 문화유적 재조명」, 제주학연구소 구술사연구회, pp.1-14.

전쟁 준비로 몰래물(沙水洞) 마을과 다호(多好)마을 사람들의 공동체가 해산되기 시작되었다고 한다면 그 주변 마을이었던 도두동도 이러한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도두봉에는 군대가 주둔하게 되었고, 진지동굴이 파헤쳐지고, 정상에 고사포와 저수조를 설치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을 강제 동원하는 일까지 자행했다. 고사포대와 저수조는 미관상 이유로 1995년에 철거한 상태이다.

이처럼 비행장 건설은 주변 마을공동체 해체는 물론 생태환경의 변화를 받아들여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특히 몰래물(沙水洞) 사람들은 고향을 잃은 슬픔을 담아 후에 몰래물(沙水洞) 기념비를 세우며, 이주하면서 겪은 어려운 과정을 참아야만 했던 지역주민들의 삶을 위로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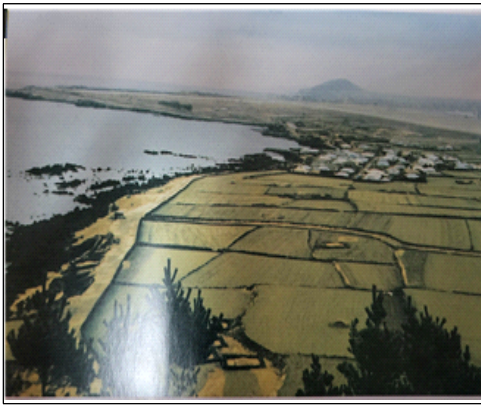


[그림 6] 몰래물(沙水洞) 마을 애향비 (연구자 촬영: 2023. 6. 16.)

2) 1945년 ~ 1978년(1·2차 공항 확장)

일제 강점기가 끝난 후 4·3 사건과 6·25전쟁을 겪으며 비행장은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한차례 공항 확장 공사를 하게 되었으며, 이로써 비행장은 미군 부대가 점령하고 타 지역 군대가 도리초교에 주둔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1백명 가까이 마을 사람들이 죽고, 도리초 교실 3개가 불태워진 것으로 마을의 피해는 심각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마을 재건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나마 1차 확장 공사로 인하여 활주로가 용담 2동에 속하고, 주변 지역은 개발 제한

지역에 묶이게 되었으며, 자연환경이 많이 변화되지 않은 상태였다. 여전히 마을 주민들은 용천수를 이용하여 농사를 짓고, 어업활동을 하며 삶을 이어오고 있었다. [그림 7] 에서 보여주듯이 도두봉을 중심으로 동쪽의 신(新)사수 마을이 없어지기 전의 모습과 [그림 8] 에서 도두봉 남서쪽의 도두동은 제주도 전형적인 농촌 마을의 모습을 기록으로도 보여주고 있다.³⁸⁾



[그림 7] 1970년대 신(新)사수 마을³⁹⁾



[그림 8] 1970년대 도두마을⁴⁰⁾

이러한 극복 노력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부터 전국적인 산업화로 인한 개발과 1974년부터 1977년까지 제2차 공항 확장 공사는 도두동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공항 확장에 있어서 용담2동 동쪽에는 주거시설과 제반 시설들이 형성된 상태이고, 공항 서쪽으로는 외도동 개발이 한창이었다. 결국 공항은 시가지 방향으로 확장하기 어려워 남서쪽으로 확장을 할 수밖에 없었으며, 결국 공항 활주로에 존재하던 물래물(沙水洞) 마을을 포함하여 지금의 사수천(沙水川)이 있는 곳까지 2차 확장 공사를 하게 되었다.

그 후 활주로 공사를 하면서 남아있는 토지들이 하나둘씩 공항 부대시설로 수용되었다. 대책사업이라 보상 자체도 턱없이 부족했으며, 이때부터 주변 그린벨트로 묶여 있던 공항 주변을 마을로 형성해 부분적으로 옮겨가게 하였다. 그렇게 만들어진 마을이 지금의 제성마을, 신성마을, 명주마을 등이다. 주변 마을로 이주

38) 한림화 외 2명(2002), 『섬의 머리마을 도두동』, 제주: 반석출판사, pp.18-19.

39) 도두동지 편찬위원회(2007), 『도두동지』, 제주: 으뜸출판, p.20.

40) 한림화 외 2명(2002), 앞의 책, pp.2-3.

한 지역주민들은 경제 활동에 대한 막막함으로 고향을 떠나는 사람과 공항 주변에 살더라도 공항 소음과 공해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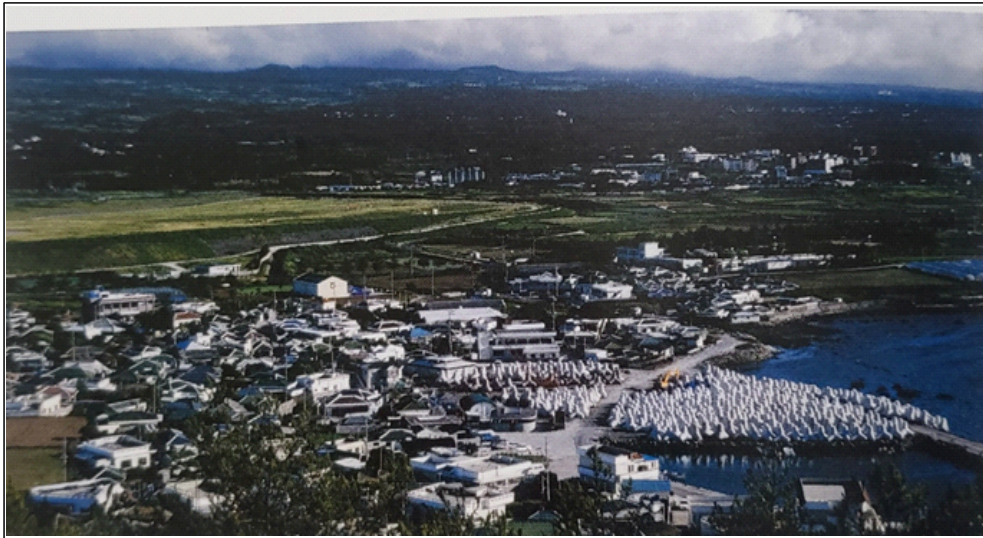
3) 1979년(3차 공항 확장) ~ 1998년(공유수면매립, 해안도로, 하수처리장건설)

1978년부터 공항 3차 확장 공사를 하게 되면서 공항 활주로에 남았던 마지막 83호마저 주변 마을로 옮겨가게 되었으며, 몰래물(沙水洞) 마을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몰래물(沙水洞) 마을이라는 공동체 또한 분산되어 다른 마을에 흩어지게 된 것이다. 활주로와 접해 있었던 다호(多好)마을도 150호에서 40호로 줄어들었고, 심지어 1차 확장 때 이주하였던 신(新)사수 마을도 1986년~1988년에 하수처리장 시설 공사로 인해 11호만 남게 되는 2차 해체 현상까지 경험하게 되었다. 이에 따르는 보상 정책도 체계적이지 못해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갔다. 공항에 포함되는 토지이다 보니 국가에서 책정하는 데로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나쁜 국가에서는 토지에 대한 보상으로 당시 시가로는 높은 평당 1만2천원으로 지급하였으나, 당시 금액으로는 비슷한 다른 지역의 땅을 살 수 있는 금액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거기에다 비행장 철조망 밖의 경우 대지만 사들이고 받은 사지 않아 경작을 할 때에는 출입이 불편하고 소음 피해까지 심각해 농사를 짓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러다 보니 경제 활동이 힘들어져 외국으로 돈을 벌러 가거나, 마을에서 완전히 떠나는 사람들도 증가하였다.⁴¹⁾ 이러한 과정을 겪는 동안 마을공동체는 사라지고 분리되기를 거듭했고, 1,2차 산업이 중심이었던 마을의 경제 활동 또한 토지 이용이 어려워져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기에 이르렀다.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해안도로 및 공유수면매립으로 관광의 활성화 정책으로 경제적인 지원활동을 하려고 하였다. 1980년대 해안도로 개설은 도두동과 같은 해안가 마을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관광명소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1990년대에는 기존의 바다였던 2만9천여평의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개발하게 됐다. 이로 인해 도두항을 정비하고, 횃집과 카페, 민박, 펜션 등 관광 관련 산업이

41) 한림화 외 2명(2002), 위의 책, pp.17-23.

들어서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가 제주도가 관광지로서의 개발과 공항의 활성화되는 시기와 맞물리며 관광업으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⁴²⁾



[그림 9] 공유수면 매립 전 도두동 모습⁴³⁾



[그림 10] 공유수면 매립 후 도두동 모습⁴⁴⁾

42) 도두동지 편찬위원회(2007), 앞의 책, p.44.

43) 도두동지 편찬위원회(2007), 위의 책, p.24.

44) 도두동지 편찬위원회(2007), 위의 책, p.24.

관광업으로 경제적 발전 속도가 빨라졌을지는 모르나 토착민들은 대부분 이주하게 되었고, 외부인들이 들어와 상권을 장악하거나 자연유산이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이들에 의해 파괴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다. 실질적으로 해안도로의 개설은 관광적으로는 성공하였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용천수의 흐름을 막거나 케와 같은 해안가에 존재하던 자연유산의 훼손이라는 되돌릴 수 없는 댓가를 치른 것이다. 또한 이러한 유산을 중심으로 마을공동체가 형성되고 이웃과 소통하는 전통적인 제주도 마을이 사라지고 해체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도 아쉬운 점이다.

개발은 현대사회에서 불가피한 것이다. 그래도 이때까지만이라도 국가의 개발정책이 자연환경과 공생하는 방향으로 방법을 전환하고, 조금만 더 천천히 진행하였더라면 이렇게 빨리 환경파괴가 진행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한 한 가지 더 아쉬운 점은 확장 공사 과정에서 공항의 활주로 밑에 4·3 유해가 묻혀 있다는 점이다. 확실하게 발굴이 완료된 것만 무려 405구이고, 이들 중 133구는 신원이 확인되었다. 공항에 묻혀 있다는 이유로 일정 기간 발굴하지 못하다가 확장 공사를 하면서 발굴해 낸 것이다.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은 유해도 많은 것으로 추측되며, 역사적 사건을 간직하고 있는 위치가 공항이기에 다시 되새길 수 없다는 점에서 안타까울 따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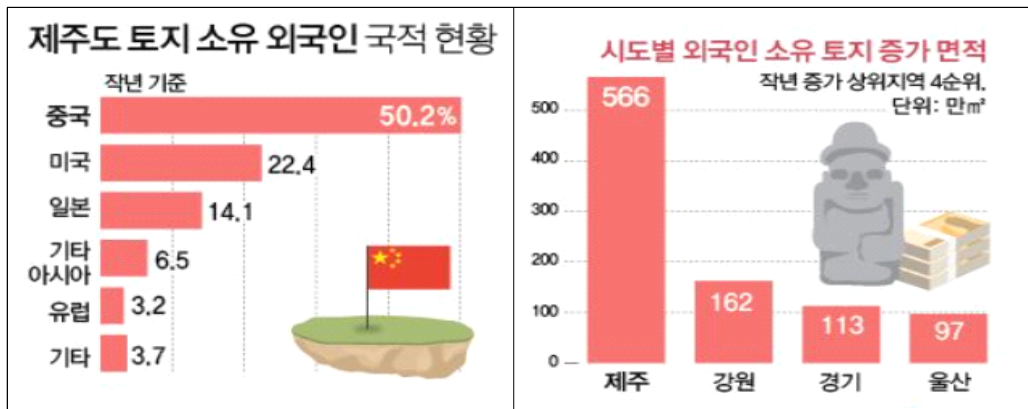
4) 2000년 ~ 현재

현재 도두동은 도두1동(2통·3통·7통)과 효동마을(1통)을 포함한 도두1동, 다호마을, 신(新)사수 마을, 신성마을로 구성된 도두2동으로 형성되어 있다. 대부분 관광산업에 종사하고, 일부는 도시 근교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그나마 존재하던 용천수도 그 수가 줄어들어 여름철이나 마을 축제 및 행사 등에 부분적으로 활용되고 있을 뿐이다. 도두봉은 해안 절경과 함께 그나마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로 이용이 되고 있다. 그러나 관광객들이 증가하여 유산의 훼손 및 쓰레기 증가로 인한 해양오염이 점점 심각 해져가고 있다. 특히 도두봉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서쪽 사면은 붕괴의 위험이 있어 지금은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그 외의 마을 유산들도 보존하는 것보다 방치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정도

로 관리상태가 좋은 편이 아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을 토지가 어느 순간에 외국인의 소유로 넘어가는 현상이 일어나 마을공동체가 흔들리고 대립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사실 이 현상은 단지 도두동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 제주도 전 지역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2000년대부터 외국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통한 제주도 개방으로 인해 외국인에 대한 토지 매입이 쉬워졌다. 2014년까지 국토교통부의 통계에 시도별 증가세를 보더라도 외국인은 제주에서 총 617만3천㎡의 땅을 사들이고 51만7천㎡를 처분했다고 했고, 특히 2010년 2월 부동산 이민제도를 시행한 이후 외국인의 토지 매입이 늘고 있었던 상황이다.⁴⁵⁾ 이로 인해 제주도는 마을 공동목장과 토지 분쟁 등으로 마을공동체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결과적으로 원만하게 해결된 예는 몇 군데 없다.



[그림 11] 2014년 국토교통부 통계⁴⁶⁾

마을 공동 재산에 대한 매입에 관한 갈등에 대해서는 도두동도 예외는 아니었다. 2016년 공동소유 건물과 토지인 신(新)사수 마을회관이 팔려서 돈을 나눠 가졌다 하여 주민 갈등이 불거졌다. 신(新)사수 마을회관은 1998년 하수처리장이 2차 확장 공사 보상으로 제주시가 5억1000만원을 들여 마을회에 소유권을 준 마을재산이다. 건물은 제주시가 1998년 3억4400만원을 들여 지었고, 공유지인 토지

45) '연합뉴스', (2015. 2. 12.), "외국인, 작년 여의도 2배만 한 제주도 땅 사들였다.", <https://www.yna.co.kr/view> (검색일: 2023. 2. 10.)

46) '연합뉴스', (2015. 2. 12.), 위의 자료

는 2000년 제주시가 준 보조금 1억6600만원으로 마을회에서 매입했다. 해당 건물은 2004년도에 마을회가 당시 마을회장 김모씨에게 매각해 공공재산 사유화 논란이 일기도 했다. 공공재산이 개인에게 매각되자 당시 제주시는 복지회관과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해달라며 소송을 냈고, 결국 사유화됐던 건물과 토지는 2005년 11월 마을회로 환원됐다. 하지만 10년 뒤에 같은 일이 반복된 것이다.⁴⁷⁾

이 사건을 계기로 한동안 공공재산이 사유화되는 과정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한 공론화가 시작되었으며, 사회적으로 문제 예방을 위한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러나 실질적인 대안이 부실한 채 호지부지 마을의 문제를 덮어버리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생태환경 변화에 따른 마을공동체 및 마을 자원을 보호해야 하는 방식과 활용하는 방안을 찾지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여진다. 마을 공공자산은 제주도의 독특한 문화를 보존하는 것이기도 하기에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지역주민들이 인식 개선과 공동체를 통해 보존·계승할 수 있도록 여건을 형성해야 한다.



[그림 12] 도두동 신(新)사수 마을복지회관
(연구자 촬영: 2023. 4. 30.)

47) ‘노컷뉴스’, (2016. 11. 8.). “백중원에 관 제주 마을재산, 1억씩 나눠 먹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 (검색일: 2023. 2. 10.)

2. 도두동의 자원 현황

제주시 도두동 자연자원으로는 용천수, 도두봉, 궤, 소금빌레가 있으며, 문화자원으로는 봉수대, 당, 포제단, 원담, 방사탑이 남아 있다. 여기에서 언급하는 자원들은 지금 현 상태를 기준으로 조사한 내용들이며, 일부 기록은 존재하지만 위치를 확인할 수 없는 곳도 다수 있었다. 이는 해안도로와 공유수면매립으로 이미 건물이나 상권들이 형성되어 완전히 사라진 곳들이다. 또한 관리 소홀이나 문화의 변화로 인해 훼손된 곳도 찾아볼 수 있었다.

1) 자연자원(용천수, 도두봉, 궤, 소금빌레)

자연 자원으로 용천수는 화산섬이라는 특색으로 해안가에 취락이 형성되는 요인과 그로 인한 생활문화가 형성되었다는 점으로 중요한 자산이다. 특히 해안가 마을인 동시에 용천수가 풍부하기로 유명한 도두동은 1980년대까지만 해도 많은 물의 양으로 지금의 원노형, 월랑, 정존마을까지 이용해 생활용수로 이용이 되었다고 한다. 현재 남아있는 용천수는 총 9곳으로 용천수를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데 3곳과 관광으로만 역할을 하는 2곳, 위치만 확인 가능한 4곳이 존재한다. 우선 마을 주민들이 운영하며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오래물, 마구물, 흘개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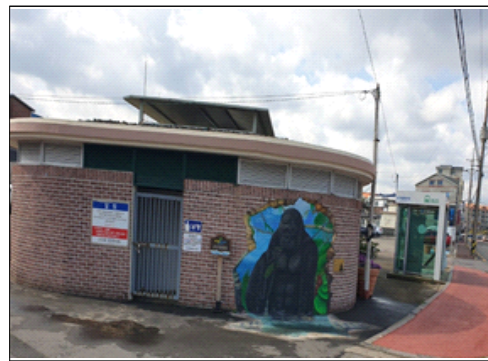


[그림 13] 오래물 여탕·남탕 입구 (연구자 촬영: 2021. 4. 17.)

오래물은 오방(午方)⁴⁸⁾에서 솟는다고 하여 오래물이라 하며, 오방은 지금의 어승생을 말하며 이곳에서 나오는 물의 다섯 갈래 중 하나로 물이 마르지 않고 오래 나온다고 하여 오래물이라 하였다.

일제강점기에는 물탱크를 설치하고 급수시설을 만들어 도두봉까지 물을 공급하였다고 한다. 지금은 도두1길 25에 여탕과 도두3길 48에 남탕이 위치 해 있으며, 여름철에 관광객을 대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여탕 입구는 두 군데로 한군데는 관광객이 이용하고 반대편 입구로는 마을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도두봉 정상에 물을 끌어 올리는 급수시설은 오래물 바로 옆에 설치가 되었으며, 지금은 지역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마구물(馬廐水)은 막은물이라고도 하며, 말도 이 물을 먹어서 키웠었다는 뜻이기도 하고, 이 물을 먹은 사람은 귀가 열릴할 만큼 너무 차가워 멍해진다는 표현으로 붙여진 명칭이다. 지금 위치는 도두1길 31-3인 마을회관 서북쪽 오래물 시내버스 정류소 옆에 남탕과 맞은편에 여탕이 위치 해 있어서 여름철이 되면 관광객이 많이 찾는 장소이기도 하다.



[그림 14] 마구물 여탕·남탕 입구 (연구자 촬영: 2021. 4. 17.)

흘캐는 신사수(新沙水) 마을에 위치 해 있는 포구를 이르는 말이며, 흘캐 포구 안에 솟는 샘을 말물(斗水)이라 하며 이는 포구 앞에 있는 큰 궤가 있어 어부들이 어구(漁具)를 보관하였는데 길이 확장되면서 궤는 없어지고 그 밑의 말귀를 닦은 네 귀 구멍에서 물이 쏟아지는 모습에서 이 명칭을 붙였다. 이 동네를 두수

48) 오방(午方): 24방위의 하나로 정남을 중심으로 한 15도 범위 이내의 방위

동(斗水洞)이라 하였고, 흘캐(屹浦)는 검은 모래밭으로 흑포(黑浦)로 불리기도 하였으며 이는 이호쪽이 흰 모래밭 백개(白浦)라고 부르는 데 기인한다고도 한다. 지금의 위치는 제주시 서해안로 301-8에 있으며, 현재까지도 여름철에 지역주민들과 관광객이 이용하는 곳으로 유명하다.



[그림 15] 흘캐 입구 (연구자 촬영: 2022. 4. 23)

이에 반해 용천수가 있었던 장소로 개발이나 건물이 세워지면서 양이 줄어들어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이 관광만 가능한 곳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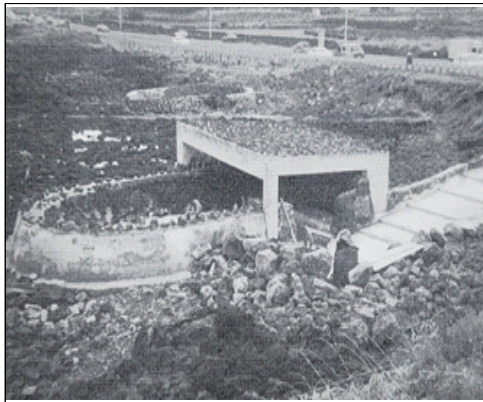


[그림 16] 생이물 (연구자 촬영: 2021. 4. 17.)

그 중 하나인 생이물은 도두동 노인회관 남쪽 도두3길 53-1 앞에 있는 용천수이며 마을 안쪽에 위치 해 있고, 용천수가 바위틈에서 용출되어 새가 날아와 먹

었다고 하여 새를 뜻하는 제주도 방언 ‘생이’ 를 붙인 명칭이다. 주택가 사이에 위치 해 있어서 주로 그 주변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여름철에 쾌적한 쉼터로 이용하고 있다.

나머지 하나는 도두봉 동쪽 해안도로 도두2동 697-10에 있는 영물인데, 낭떠러지처럼 생긴 모양이 제주말로는 ‘영’ 이라 하며, 높은 동산 밑에서 단물이 솟아난다 하여 영물이라고 한다. 이 물은 생명수라 하여 3개의 마을에서 모두 이용했으며, 지금은 해안도로로 인해 그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지만 보수로 인해 조금이나마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곳이다.



[그림 17] 1930년대 영물 여탕 보수 사진⁴⁹⁾



[그림 18] 현재 영물 위치와 안내판 (연구자 촬영: 2022. 4. 23.)

위 두 군데 용천수는 실제적으로는 활용은 하고 있을 만큼의 용량은 안 되지만 마을에서 그나마 관리하고 있다. 사실 용천수는 해안가 곳곳에 많이 분포해 있었으나 해안도로 개설과 함께 거의 사라졌다고 봐도 무방하다. 또한 해안도로로 주변이 상가와 건물이 지어지게 되면서 그 흔적조차 사라진 예와 위치만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대부분이었다. [그림 19] 의 지름물과 [그림 20] 의 죽은물이 그 예이다.

그 외 마구물 여탕 동쪽 윤경삼씨 집(도두1길 33)에서 분출되었던 용천수는 마을 포제시 정한수(井華水)로 사용했던 일명 ‘포제물’ 이라하여 10여년 전까지도 사

49) 물래물향토지발간위원회(2000), 앞의 책, p.123.

용을 하였으며, 양도 풍부하였다고 한다. 또 오래물 남탕 서쪽 지금의 노인회관 자리에 위치 해 있었던 ‘필랑물’ 은 일제강점기 때까지 이 곳이 뿔(필)로 이루어져 있었고, 갈대숲이 있어서 민물장어를 양식했다 하여 ‘필랑물’ 또는 ‘필랭이’ 라고도 하였다.



[그림 19] 지름물 위치⁵⁰⁾
(연구자 촬영: 2021. 4. 24.)



[그림 20] 죽은물 위치⁵¹⁾
(연구자 촬영: 2021. 4. 24.)

이러한 용천수들은 제주도 생활근간을 구성하였던 중요한 요소이다. 어쩌면 제주도 마을의 생활문화의 정체성이 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상하수도가 보급되고 개발이 진행될수록 용천수의 중요성도 사라졌고, 그 수도 많이 남지 않지만 보존해야 할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파괴되면 되살릴 수가 없는 것이 자연환경이기 때문이다.

자연 자원으로는 해안가에 우뚝 솟아있는 도두봉을 빼놓을 수가 없다. 도두봉에 대한 기록을 옛 문헌에서 살펴보면,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在州西十三里(제주읍성 서쪽 13리경에 있다)” 는 기록과 증보탐라지(增補耽羅誌)』에 “도두봉은 제주읍 도두리 동북방 해변에 있으니 높이가 65m요, 작은 삼각점이 있다.” 라는 기록이 있다.⁵²⁾ 도들봉, 도두리 오름이라고도 불리우며, 지금은 섬의

50) 도두봉 서남쪽 도두항길 2-3번지에 바다와 접한 반석에서 솟는 샘으로 지금은 매립되어 주차장으로 사용 하는 곳으로 어부들이 바다에 갈 때 그 물을 배에 싣고 갔다고 하며, 길 옆에 있었다고 해서 지름(‘길’의 제주도 방언)물이라고 하였다.

51) 오래물길 9에 있었던 죽은물은 지금은 마트가 생겨나면서 매립을 하니, 물이 옆집 밭 가운데서 작게 솟아난다고 하여 작다라는 제주방언이 ‘죽다’여서 ‘죽은물’이라 불렀다.

52) 도두동지 편찬위원회(2007), 앞의 책, pp.45-46.

머리라 하여 도두봉이라 하고 있다. 제주의 약 360여개의 오름 중의 하나이고, 수성화산에 속하며, 분화구가 없는 원추형 화산체로 화산암, 응회암, 퇴적층으로 이루어져 도두봉 서쪽 방과제로 들어가는 지점에 노두(露頭)를 통해 화산체의 내부를 관찰할 수 있다. 뿐만아니라 도두봉에는 오름허릿당과 포제단, 진지동굴, 봉수대가 있어 자연·문화자원이 혼재한 곳이다. 도두일동 산 2번지에 위치 해 있으며, 해질 무렵 정상에서 바라보는 석양의 낙조와 해안도로로 이어지는 도두봉은 지금도 관광객이 많이 찾는 장소이며, 마을 공원이 조성되어 주민들이 산책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림 21] 도두봉53)



[그림 22] 큰케물, 작은케물 (연구자 촬영: 2021. 4. 10.)

53) 정보화 마을 위원장 김경돈 사진작가 제공.

또한 도두봉 동쪽에는 신(新)사수 마을까지 해안도로를 따라서 남아있는 궤와 바다에서 소금을 만들었던 흔적을 볼 수 있다. 궤는 지금의 모습으로는 짐작하기 힘들지만 신성마을에 거주하는 김승규⁵⁴⁾ 씨의 구술증언에 의하면 해안도로와 상가건물들이 들어서면서 많은 부분이 파괴되었고, 해안가에 조금 남아있는 형태로 위치만 예상이 가능했다. 궤는 해안가에 용천수가 나오며 깊게 파인 동굴 형태를 말하며, 대부분 어부들이 여기에 어구를 보관하고 목욕을 하는 곳이기도 하고, 주민들 또한 많이 이용하였던 자원이다. 도두봉 동쪽 해안가에 위치 해 있다. 해안도로를 따라 동쪽으로 가다 보면 도두2동 697-10에 돌로 구역이 구분된 넓은 바위를 볼 수 있다. 이 모양은 흔히 바다에서 소금을 얻는 데 사용되었던 바위들이다. 실제로 몰래물(沙水洞) 마을이 사라지기 전에는 ‘소금밭’이라는 지명이 있었다. (화살표는 연구자가 표시한 것임.)



[그림 23] 몰래물 약도의 소금밭 위치⁵⁵⁾



현재 모습
(연구자 촬영: 2022. 4. 23.)

이를 통해 보면 주민들은 바다가 주는 혜택을 공동체와 나누는 아름다운 미덕이 있었으며 선조들의 삶 자체가 제주도 생활문화를 이루는 근간이었음을 알 수 있는 자원이다. 비록 개발에 밀려 많이 파괴되어 조금밖에 남지 않았지만 제주도 생활문화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자원 중 하나이다.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해야 할 과제를 남겨준다.

54) 몰래물 마을에 살다가 1979년 3차 공항확장 공사 때 신성마을로 거주지를 옮긴 분(남, 65세)
55) 몰래물향토지발간위원회(2000), 앞의 책, p.43.

2) 문화자원(봉수대, 진지동굴, 당, 포제단, 원담, 방사탑)

도두동의 문화자원으로는 도두봉에 역사적 자원인 진지동굴 2곳과 봉수대, 문화자원인 원담 1곳, 신앙·민속 자원으로는 당 3곳과 포제단 1곳, 방사탑 2기가 있다. 역사자원인 봉수대는 도두봉 정상에 위치 해 있으며, 국경의 수비를 담당하는 성곽, 방호소, 수전소⁵⁶⁾, 연대들을 포함한 관방유적(關防遺蹟)에 속한다.

조선시대 중종대(1506~1521)에 대대적으로 관방을 축조하였으며, 제주도내에는 25개소 봉수대와 38개소 연대가 있었으며, 그중 하나가 도두봉수이다. 도두봉수는 동으로는 사라봉수, 서쪽으로 수산봉수가 있으며, 산 정상을 중심으로 타원형으로 독을 쌓고 석축을 쌓아 봉화를 올리도록 구축하였는데 지금은 봉수대 형태를 찾아볼 수 없고 그 기록만 새겨놓은 비(碑)만 있다. [그림 24]

봉수대뿐만 아니라 역사적 자원인 진지동굴은 일제강점기 때 전쟁을 위한 시설물로 도두봉에 1연대가 주둔했다는 기록으로 보면 그 크기나 형태가 클 수밖에 없었을 거란 예상이 가능하다.



[그림 24] 봉수대 터
(연구자 촬영: 2022. 4. 23)

실제적으로 진지동굴 내부는 'ㄷ' 자형 동굴이 3곳이고, 'ㄱ' 자형 동굴 1곳 총 4개가 존재했었다고 한다. 길이가 긴 것은 80m이고, 짧은 것은 8m이며, 입구는

56) 제주도의 경우에는 방호소(防護所)와 수전소(水戰所)라는 특별한 명칭을 두었다. 이 중에서 수전소는 공납과 선물(贍物)이 출항하는 곳으로서 전선(戰船)이 배치되었다.

봉우리 동남사면의 하단부와 중간 지점에 자리하고 있다.⁵⁷⁾ 그러나 마을 주민에 의하면 용수가 풍부하고 비행장이 인근에 있는 관계로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인원들이 주둔하였고, 진지동굴도 2015년~2018년 발굴 당시 작은 동굴까지 합하면 거의 10개 정도가 되었다고 하였다. 그 후 작은 동굴들은 내려앉아 메워져 버렸고, 지금 입구 표시가 된 곳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큰 동굴이었지만 안전상의 이유로 동사무소에서 입구를 막아놓은 것이다.⁵⁸⁾



[그림 25] 일제 강점기에 설치된 진지동굴⁵⁹⁾



[그림 26] 진지동굴 입구 및 안내판 (연구자 촬영: 2021. 5. 15.)

57) 제주도와 제주역사진흥원에서 2011년 5월에 펴낸 '제주도 일제 군사시설 전수 실태조사'보고서

58) 구술증언, 김승규, 신성마을 거주, 남, 65세. (2023. 4. 20.)

59) 김승규(2018), 「도두동의 역사와 문화유적 재조명」, 제주학연구소 구술사연구회, pp.1-14.

동굴이 없어지는 것은 아마도 자연적인 현상일지도 모르지만 남아있는 진지동굴의 입구가 사라지기 전에 발견된 위치나 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문이나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록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 외 제주도는 예로부터 ‘당 오백, 절 오백’ 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민간신앙이 생활 속에 깊이 뿌리박혀 있었다. 제주도 전통 마을에서는 남성 중심의 유교식 ‘포제(酬祭)’와 여성 중심의 ‘당굿’이 주로 행해지고 있었다. 도두동에서는 현재 오름허릿당, 흘개 분향, 몰래물 분향 3곳과 마을 포제단 1곳이 남아있다. 마을 주민들의 이야기로는 그 외에도 22개당이 존재했었다고는 하나 지금은 위치도 없어지고 사람들의 기억에서도 잊어져가고 있다.



[그림 27] 오름허릿당 (연구자 촬영: 2022. 4. 23)

오름허릿당은 도두봉 입구 관음정사 뒤쪽에 위치 해 있으며, 매년 심방은 없으며 원래는 정월 초사흘, 초이래, 대보름달, 보리 수확 후 치성을 드리지만 지금은 개인적 사정에 맞추어 날짜나 제물도 준비하고 와서 치성을 드리곤 한다. 오름허릿당은 제주시 서부 지역의 뿌리가 되는 당으로 이호, 도두 여러 마을의 당신으로 자리하고 있다.⁶⁰⁾

흘개 분향당은 신(新)사수 마을 포구 동쪽 해안가에 위치 해 있으며, 2랭이물당 이라고도 하며, 정월 명절과 8월 추석 전날인 선달그믐과 8월 14일에 당을 다녀오고 나서 명절을 차렸다. 이 당은 마을 분향당이며 주로 어부들을 위한 풍농,

60) 도두동지 편찬위원회(2007), 앞의 책, pp.175-180.

풍어를 기원하는 해신당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당이다.

몰래물 본향은 해안도로 영물 동쪽에 왕돌이라는 넓은 반석에서 요왕제를 지내고 바다에 나가는 사람을 위해 치성을 드리는 곳이었다. 그러나 실제 당의 위치는 공항 확장 공사로 몰래물(沙水洞) 마을이 없어지면서 당도 폐당이 되었다. 지금은 도두2동 697-10번지에 위치한 왕돌과 비만 남아서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



[그림 28] 훌개 본향당 (연구자 촬영: 2022. 4. 23.)



[그림 29] 왕돌과 할망당 안내비(碑) (연구자 촬영: 2023. 3. 1.)

그 외 마을에 남아있는 도두항 서북쪽 끝에 위치한 스득모실 또는 ‘할망당’은 원래 도두마을 농협 창고 있는 자리에 왕석이 신당터였으나 매립으로 인해 바닷가쪽으로 옮겨 지금의 위치에 모시고 있다. 여기 또한 정월 명절과 팔월 추석 전

날 주로 어부들이 찾아서 치성을 드리는 곳이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마을 포제단은 도두봉 남쪽 입구 100m 지점에 위치 해 있으며, 30평 규모의 제터에 가운데 재단이 놓여 있다. 예전에는 음력 6월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에 택일을 치렀으나, 지금은 매년 음력 6월에 날을 정하여 제를 지내고 있다. 이 포제는 마을의 안녕과 오곡풍성, 육축번성을 마을의 수호신인 ‘포신지령’에게 기원하는 의례이다.⁶¹⁾



[그림 30] 스득모실당 (연구자 촬영: 2022. 4. 23)



[그림 31] 마을 포제단 (연구자 촬영: 2022. 4. 23.)

61) 도두동지 편찬위원회(2007), 앞의 책, p.185.

다른 형태로 마을의 평온을 기원하는 방법은 방사탑 형태로도 남아있다. 방사탑은 사악한 것을 막기 위해 쌓은 것으로 육지부의 솟대와 장승 등의 의미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도두동에는 방사탑이 3기가 있었으나, 다호마을에 남아있던 1기는 도로 확장 공사로 없어지고 영물 해안가쪽에 2기가 남아있다.

풍수지리상 몰래물(沙水洞) 마을이 해안 부근이 약하여 쌓았다는 의견도 있고, 일설에는 어느 집안이 부정을 막기 위해 세웠다고 하는 설도 있다. 그러나 홀포 쪽 문둥병자들이 거주하였던 곳이 있어 이를 막으려 세웠다는 설이 가장 타당성이 있다고 한다. 지금 남아있는 위치는 도두2동 692-11번지이며, 상태도 방사탑인지도 모를 정도로 안내판조차 없다. [그림 32]



[그림 32] 방사탑 2기 (연구자 촬영: 2022. 4. 21.)



[그림 33] 기건목사의 구질막(救疾幕)터⁶²⁾
(연구자 촬영: 2023. 3. 11.)

또 하나의 문화자원은 원담이다. 원담은 전통적인 어로 방식으로 해안가에 적당한 높이의 돌담을 쌓는 원담(갯담)에서 밀물과 썰물의 차를 이용하여 고기를 잡는 방법과 해안가 하천 하류에 담을 쌓지 않아도 물이 둘러 빠지게 땅이 깊게 패여서 된 천연 원을 이용하여 고기를 잡는 방법이 있었다. 대부분 해안가 마을이 이런 방식을 통해 어업활동을 하였으며, 도두동은 어종의 양이 많아 두 가지 형태가 모두 존재하다가 사라졌다.



[그림 34] 요메기 원담 및 안내판 (연구자 촬영: 2021. 4. 10.)

1980년대까지 도두동에 존재하였던 원은 정드르원, 진빌레원, 두 원, 큰서흘원, 다호원, 요메기원 6개이다. 정드르원은 신사수 마을 동쪽 연안 조간대 공동집단 어로라는 명칭으로 정드르라 하였으며, 용담 3동과 해안 경계 지점인 빌레 서쪽에 위치한 진빌레원, 신사수 포구 서쪽 연안에 바다를 가로막아 동서로 늘어선 암반을 의지하여 만든 두 원, 신(新)사수동 서쪽 질편한 벼랑 바위층에다 동서로 담을 쌓아 만든 큰 서흘원, 신(新)사수동 ㄱ랭이동산 바로 서쪽 부근에 다호 사람들이 관리하던 다호원 등이 있었다. 이 원담들은 마을 공동소유로 마을 주민들이 원담을 쌓고, 보수 관리도 마을공동체를 통해 하는 어업활동이며, 예전에 흔히 볼 수 있었던 마을 문화였다. 일제강점기 때까지는 다양한 어종과 풍부한 양으로 잡아 올리기가 버거울 정도였다. 그나마 1990년대까지는 흔적을 알 수 있었

62) 1445년 선정관이었던 기건 목사께서 나병에 감염되자, 이곳 ‘벵막이모루’에 도내 첫 의료기관인 공립의료원인 ‘구질막’을 세워,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던 곳으로, ‘홀내’를 건너는 제3사수교 서쪽 ‘벵막이모루’ 언덕이다. 다음백과, <https://100.daum.net>.(검색일: 2023. 4. 28)

던 원담들은 사라지고, 지금은 도두동 동쪽 기슭 옆에 위치 해 있는 요매기(제주도 방언으로 ‘갈매기’ 를 뜻함) 원담을 제외하고는 그 형태조차 찾아보기가 힘들다.⁶³⁾

이와같이 도두동에 남아있는 자연· 문화자원은 용천수 5곳, 진지동굴 2곳, 도두봉 봉수대, 당 2곳, 포제단 1곳, 방사탑 2기이다. 2000년대에 비해 그 수가 반 이상이나 줄어든 상태이며. 보존 상태도 그리 온전하지 않다. 특히 마을 주민 반 이상은 마을에 존재하였던 자원이라는 인식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거주하고 있는 도두동 주민들 대부분은 이주민이나 외부인들이 많아 당연한 결과인지 모르나 지속적인 지역주민 인식개선 및 교육이 필요하다. 이 상태로 지속된다면 20~30년내에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사회와의 합의점을 찾아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시점이다. 이를 위해 도두동의 가치를 생태환경과 마을공동체, 마을자원을 연결하여 관리할 수 있는 ‘생태관광지정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63) 도두동지 편찬위원회(2007), 앞의 책, pp.187-191.

IV. 생태마을로서 도두동의 가치와 자원 활용방안

1. 생태마을로서 도두동의 가치

위와 같이 도두동의 자연·문화자원은 도두1동과 도두2동 해안가를 따라서 분포하고 있다. 아름다운 해안과 도두봉이 있어 자연적인 포구가 형성되고, 해안가에서 시원한 용천수가 사시사철 쉽 없이 솟아나는 마을인 도두동은 개발이나 공항 이전의 생태적인 모습은 볼 수 없지만 남아 있는 자연·문화자원은 지금도 관광객들로 하여금 방문할 수 있는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대표적인 도두봉과 용천수의 분포가 도두1동으로 치우쳐 있어서 여기에서의 마을과 마을 자원 관리에 대해서는 도두1동을 중심으로 가치를 검토하려고 하고 있으며, ‘생태관광지정제도’에 따른 평가기준을 근거로 도두동의 마을공동체와 마을자원의 연관관계를 알아보고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자연 생태적 가치를 알아보기 위해 지금 도두동의 지리적·산업적 환경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지리적 환경으로는 제주 공항에서 10분 거리에 위치 해 있으며, 주변 관광지로는 검은 모래사장이 있는 이호해수욕장과 용두암이 인접해 있으며, 레포츠공원 등 휴양 시설이 갖춰져 있다. 해안도로와 도두항 인근에는 민박, 펜션 등의 숙박 시설과 토속음식점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금도 깨끗한 수질을 자랑하는 오래물과 막은물 등의 용천수가 있으며, 바다, 오름, 농촌이 어우러지는 자연환경을 간직하고 있다. 산업적 환경으로는 농업과 어업을 병행하는 농어촌마을이며, 그 수는 많지 않으나 여전히 도시 근교 농업 형태로 소규모 밀감과 채소 농사를 짓고 있으며, 어업은 공유수면 매립 이후 많은 수산물 가공업체 등이 입주하면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다. 청정한 제주 바다에서 생산되는 각종 최상품의 수산물과 농산물을 최고의 품질로 소비자에게 다가설 수 있도록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바다에서는 주변의 해수욕장과 연계하여 유람선 관광, 요트 운영 등 자연이 살이 숨 쉬는 해양 레저와 스포츠를 즐기는 제주의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 바다와 하늘이 만나듯 가슴과 탁 트인 수평선을 볼 수 있는 도심 속 바다를 지

키는 도두봉은 입구의 관음사 절을 비롯해 지역문화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높이고 예로부터 미풍양속을 지켜오던 제단도 볼 수 있으며, 도두봉 정산에서 바라보는 빨간 등대와 하얀 등대가 마주하고 있는 포구는 최고의 산책로와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다.

둘째, 도두동 마을공동체는 주민센터를 비롯하여 11개의 공동체가 존재하고 있다. 매월 1회~2회 정기모임을 가지고 있으며, 마을에 관한 활동을 하고 있다. 2019~2022년까지 코로나로 인해 정기적인 행사는 중단된 상태였으나, 2022년부터 하나씩 개최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일 큰 축제는 지금 매년 8월 열리는 도두·오래물 축제로, 도두동 연합청년회가 주관하며, 모든 마을 단체가 참여하는 축제이다. 오래물 맞기, 오래물 밭 담그기 등 체험행사와 어린이 풀장과 놀이시설을 설치해 많은 이들의 발길을 모으고 있고, 해산물 잡기와 가요제 등 다채로운 행사들은 주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과 도민들까지 화합의 장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표 3> 도두동 마을공동체 현황

조직	주체	구성	활동내용
정보화마을 ⁶⁴⁾	행정안전부	3명	- 마을정보센터 운영 - 마을정보센터 시설 장비 운영 및 유지보수 - 인터넷 전자상거래 지원센터로 중점 운영 - 마을 특산품 품질관리
주민자치센터			- 아름답고 활기찬 행복 일번지 - 도두마을 만들기 추진
어촌계 어부회·해녀회	어촌계	36명	- 해안 정화 활동 - 해적생물 구제 등 어장자원 보호 - 해녀들의 복지 향상도모
통장협의회		7명	- 도정 주요시책 주민홍보 - 지역 주민 의견수렴 행정예 건의 - 기초질서 지키기 등 시책 추진
바르게 살기운동 도두동협의회	지역봉사 자생단체	13명	- 교통안전 캠페인 - 주·정차 질서 확립 - 쓰레기 종량제 실천

64) 정보화마을: 2001년부터 지역활성화 사업의 하나로 전자정부법 제65조에 의해 행정안전부와 농림부, 정통부 등 관련 부처 및 유관기관으로 구성 2022년 7월 8일 기준 전국 252개, 제주도 9개 마을이 선정되어 운영하고 있다.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은 농촌, 어촌 그리고 산촌과 같이 정보화

도두동 청소년 지도자 협의회		17명	- 청소년 선도 활동 (월 1회) - 수험생 고사장 수송 활동 - 자연 정화활동
도두동 선거관리위원회		6명	- 각종 선거관리 및 선거에 관한 업무관리
도두동 연합청년회	청년회	45명	- 방법 활동 - 오래물 대축제 추진 - 관내 용천수 정비 및 관리
도두동 마을회		62명	- 마을 안 주·정차 지도 단속 - 마을 발전을 위한 봉사활동 (기초 생활 수급자, 독거노인) - 불우이웃돕기
도두동 노인회		149명	- 노인 건강증진 - 여가 전용프로그램 운영 - 실버환경봉사단 운영
도두동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지역 봉사자	22명	- 자율 방역 활동 전개 - 환경지킴이 운영
도두동 새마을 부녀회	부녀회	25명	- 관내 환경 정비활동 - 부녀회 상설매장 운영 - 이웃돕기 및 노인 급식 봉사 - 사랑의 김치 전달

(자료: 연구자 정리)

그러나 안타까운 점은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오염으로 매년 물의 양이 줄어들고 있는 점이다. 사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물의 양이나 수질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 물의 흐름이 막힌다는 것은 개발에 대한 제고가 필요할 때임을 시사해주는 것이다.

이 외에도 2015년까지 정보화마을 위원회에서 주최한 도두봉 역사탐방이라는

에 소외된 지역에 초고속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과 전자상거래와 정보 콘텐츠를 구축하여 지역 주민의 정보 생활화를 유도하고 실질적인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해 발전을 이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정보화 마을 홈페이지: www.invil.org) (검색일: 2023. 4.12.)

프로그램 운영으로 마을 주민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참가하여 도두봉의 진지동굴에 관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코로나 이후에는 행사나 축제는 진행하지 못하였고, 해녀들이 수산물이나 마을 특산물을 드라이브 스루(drive thru)로 판매하는 장이 한 달에 한 번 여는 게 전부였다. 2022년부터는 오래물 축제가 부활이 되고 차츰 도두동 마을 자원을 활용한 행사를 하고 있다. 꾸준히 진행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필요한 시점이다.

셋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두동은 마을공동체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 지자체와 함께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할 때이다. 이는 날로 심각해지는 개인주의와 이기심으로 인해 훼손되는 자원을 방지하기 위함이고, 아울러 이를 계기로 귀중한 자산을 보호하고 미래에 계승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선 선홍1리 사례에서와 같이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며 마을 자원의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 선홍1리도 초기에는 마을 사람들이 자원의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여 어려웠으나, 꾸준한 교육과 인식개선으로 변화를 기대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한 마을 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마을 자원을 마을 주민들이 관리해야 한다는 인식과 경제적인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할 필요 또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생태관광지정제도’를 통한 생태마을로 지정하여 관광객이나 지역주민들이 건강한 관광과 유익한 지식을 얻어갈 수 있는 마을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지금에 와서 생태환경을 예전으로 되돌려 놓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생태환경의 대안을 찾고 사회와 합의점을 찾는다면 마을공동체와 마을 자원을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아울러 마을 자원을 이용하여 교육적 활용방안과 주민역량 강화에 필요한 절차를 제시 해 보기로 하겠다.

2. 도두동 자원의 활용방안

도두봉의 서쪽 사면에 분포한 지질체험, 남아 있는 용천수와 문화 자원을 이용한 마을 탐방 및 역사체험 프로그램을 통하여 교육적 활용방안을 제시하려고 한

다. 이 세 가지는 대부분 학생들 중심 방과 후나 체험학습 교육지도안으로 제시하였지만, 학생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관광객, 가족, 지역주민들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이론으로만 배웠던 학생들이 체험학습을 통한 교육, 보는 관광에서 역사와 스토리텔링을 통해 제주도 선조들의 생활문화를 이해하는 유익한 관광으로, 무심코 지났던 마을 자원이 귀중한 자산임을 인식할 수 있는 지역주민들까지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

1) 도두봉의 지질 체험

제주도의 오름은 화산 활동으로 이루어진 결과물이며, 화산분화는 화산의 구조와 위치, 마그마의 화학성분, 온도, 휘발성분의 함량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제주도는 비폭발적인 하외이형 용암분출(Hawaiian lava effusion)과 마그마의 휘발성분이 분출로 화산쇄설물이 분석구(scoria cone)를 만드는 스트롬볼리형 분화(Strombolian eruption) 등을 통해 형성되었다. 또, 지하의 마그마가 상승하며 다양한 유형의 외부의 물(지하수, 빙하, 눈, 바닷물, 호수 등)을 만나 생긴 수성화산 분화(hydrovolcanism)는 응외구, 응회환, 마르 등의 화산체를 만든다.⁶⁵⁾

(지질용어는 <표 4> 를 참고)

오름은 제주어로는 ‘악’, ‘봉’ 이라 부른다. 제주도는 순상화산⁶⁶⁾에 속하며, 초기에는 규모가 큰 순상화산 주위에 만들어진 화산이란 뜻으로 오름을 기생화산(parasitic volcano)이라 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순상화산과는 별개로 독립적인 화산활동으로 이루어진 단일 화산체로 보고 있으며, 단성화산(monogenetic volcano)이라 한다.⁶⁷⁾

제주도 오름은 약 368개가 존재하고 있으며, 대부분 분석구이며, 화구로부터 분출한 분석이 쌓여 원추형을 이룬다. 대표적인 제주도 오름에 대해 알아보면,

65) 김용재 외 11명(2020), 『제주도 지질여행』, 대전: 한국지질연구원, pp.5-10.

66) 접도가 낮아 넓게 퍼지는 용암류가 차곡차곡 쌓여서 경사가 완만하고 기저면이 넓은 화산체를 말한다. 마치 모양이 방패같다고 하여 순상화산이라고 한다. 하와이와 제주도가 대표적인 예이다. 다음 백과, <https://100.daum.net>. (검색일: 2023. 04. 28.)

67) 김용재 외 11명(2020), 『제주도 지질여행』, 위의 책.

용암이 분출해 작은 규모의 방패형 화산을 형성한 모슬봉과 마르(또는 폭렬공)의 형태를 이루는 하논 분화구, 점성이 높은 조면암질이 멀리 흐르지 못하고, 그 주변에 축적 되어 형성된 산방산, 영실, 백록담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용암을 분출하던 중 하부에 있던 마그마가 다른 통로로 빠져나가게 되면서 수직 함몰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함몰분화구라 하며, 산굼부리가 해당된다. 함몰분화구는 절벽에서 떨어져 나온 암석이 분화구 바닥에 쌓이는 일이 많으며, 용암으로 채워져 용암호를 만들기도 한다.⁶⁸⁾

도두봉은 수성 화산분화에 속하며 응회구 형태의 화산체가 만들어지면서 형성되었다. 응회암이 쌓인 모습을 보면 어느 방향에서 화산이 분출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으며, 암석 색으로 풍화 침식된 부분도 확인할 수 있다. 도두봉 응회암은 현무암질 화산쇄설층으로 도두봉 북쪽 및 서쪽 사면에 소규모로 분포한다. 갈색 혹은 암적색을 띠며 다량의 화산쇄설물이 엉켜 굳어진 고결층을 이루고 층리 발달이 양호하다. 도두봉을 오르는 길 양쪽으로 화산석이 발견되기도 한다. 도두봉 정상에는 화산 송이도 확인할 수 있다.⁶⁹⁾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도두봉의 지질체험을 학생들에게 야외 체험학습으로 경험과 관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관광객이나 지역주민에게는 오름의 특성과 함께 유익한 관광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여기에서는 사회 교과와 연관된 체험학습 형태나 방과 후 활동에 대한 지도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첫째, 준비학습을 통한 지질에 대한 기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자료를 조사한다. 사회 교과에서 배웠던 지질용어와 형태를 예습하고 다양한 자료를 통해 그 모양과 형태를 확인한다.

둘째, 야외 답사 단계로 준비학습에서 공부한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체험한다. 남아 있는 지질을 사진으로 찍어보고 다른 오름과 차이점을 비교 해 본다.

셋째, 체험활동 후 요약정리하고, 지금도 도두봉의 서쪽 사면은 유실되는 상태로 있는 데에 대한 보존 방법에 대해 논의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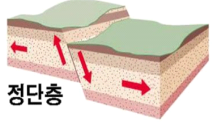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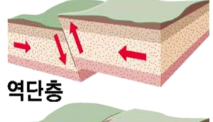




넷째, 도두봉을 포함한 제주도 오름들이 세계자연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생각해 본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체험학습을 한다.

68) 김용재 외 11명(2020), 앞의 책.

69) 김용재 외 11명(2020), 위의 책, p.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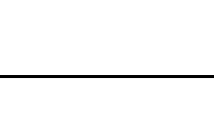
① 학습자료: 도두봉 체험학습에 필요한 지질용어

<표 4> 도두봉 체험학습에 필요한 지질용어⁷⁰⁾

용어	뜻	
응회환	수성화산 분출에 의해 높이가 50m이하이고, 층의 경사가 25° 보다 완만한 화산체	
응회구	수성화산 분출에 의해 높이가 50m이상이고, 층의 경사가 25° 보다 급한 화산체	
화산탄	용암이 공중에서 회전하며 고구마 모양을 이루어 떨어진 것	
탄낭구조	암편 혹은 화산탄이 응회암에 떨어져 층리를 아래로 오목한 주머니 모양으로 변형시킨 구조	
역단층	단층면의 경사가 상대적으로 위로 밀려 올라가 암반 쪽으로 기운 단층을 말한다. 역단층은 지각을 짧아지게 하거나 수축하게 하는 수 평압력으로 생긴다. 상향 굴곡면 중 가장 쉬운 경로를 따라 위쪽에 있는 상반이 아래쪽 하반을 타고 위쪽으로 이동하는데 경사가 45° 이상인 단층이다.	 <p>정단층</p>  <p>역단층</p>  <p>주향이동단층</p> 
점이층리	지표면의 암석이 상온, 상압에서 풍화 작용으로 분해, 이동되어 지구 표면에 쌓이는 퇴적 작용으로 생긴 암석	
암맥	주변 암석과 부조화적인 관계를 보이는 판사의 관입암체를 의미한다.	
송이	화산 폭발시 점토가 고열에 탄 화산석인 돌 솟	
분석구	화구 주변에 분석을 주로 한 화산쇄설물이 언덕 모양으로 쌓인 화산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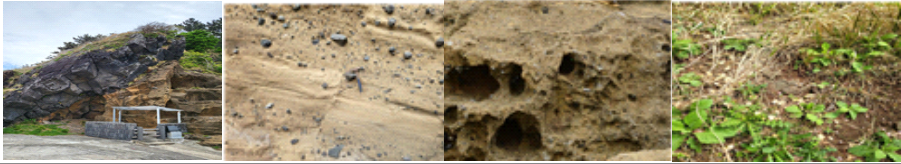
70) 김용재 외 11명(2020), 위의 책, pp.263-266.

② 체험학습 지도안71)

대상	초등5~6학년	일시		장소	도두봉
주제	도두봉을 통한 제주도 오름의 유산적 가치			관련 영역	사회(지리)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두봉에 분포한 지질의 특성을 알 수 있다. · 제주도 오름의 유산적 가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단계	활동내용			시간	자료 및 유의점
준비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와 카메라를 준비한다. · 기록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10분	지질용어, 카메라 활동학습지
학습안내	도두봉 서쪽부터 지질은 확인하면서 오른다.			30분	       
도두봉 탐구활동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두봉 기슭에 분포한 응회암을 보며 화산의 분출 방향을 확인한다. 2) 암석의 색으로 암석이 퇴적 시기를 비교한다 3) 해안가를 따라서 용암이 흘러간 모습과 풍화 침식된 모습을 확인한다. 4) 점이층리, 역단층, 암맥을 확인한다. 5) 도두봉 정상으로 올라가면서 화산탄의 흔적을 확인한다. 6) 정상에서 송이가 분포한 부분을 확인하고 송이의 특징을 이해한다. 				
정리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보호 활동 · 자연유산으로서의 오름의 가치와 타당성을 논의한다. 			20분	

71) 오재호(2010),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제주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야외학습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20-23.

③ 활동 학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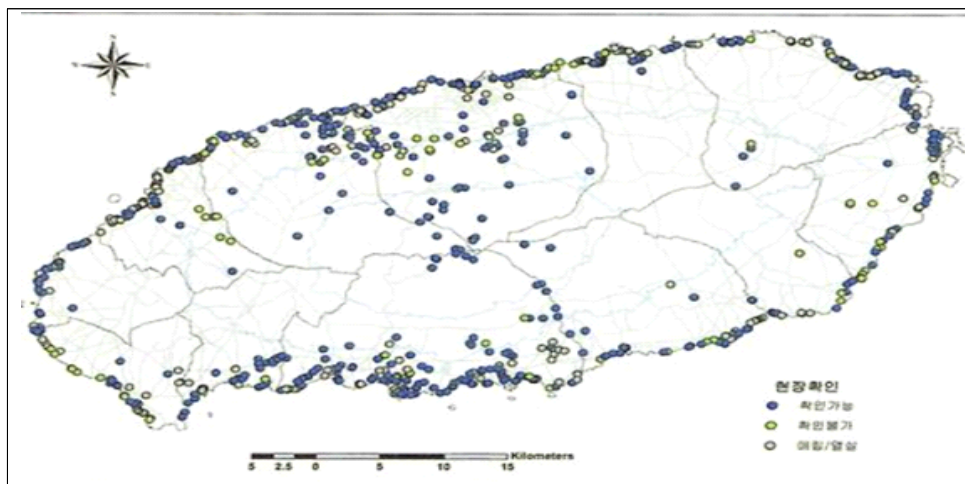
1. 제주도 화산으로 인한 오름의 특성과 종류에 대해 조사한다.
예: 제주도 동부에 분포한 오름, 서부에 분포한 오름, 등
2. 도두봉은 어떤 화산활동으로 생겨났는 지 알아본다.
예: ① 수성화산이란: ② 도두봉이 수성화산이라고 하는 이유: 쌓인 방향 ③ 직접 관찰을 통해 학습자료와 비교하고 지질용어를 써 본다.

3. 도두봉이 자연 유산으로써 보존해야 하는 이유와 보존 방법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발표해 본다.
예: '도두봉 자연·문화 자원 지키기'

2) 자원탐방 및 역사체험

도두동 마을 탐방과 역사체험을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겠다. 우선, 용천수 분포에 따른 마을 탐방, 당과 포제단, 원담, 방사탑까지 답사와 신석기 유적지와 도두봉의 진지동굴, 봉수대를 통해서 보는 역사탐방으로 나누어 그에 맞는 필요한 학습자료와 교육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도두동 마을 자원탐방

제주도의 용천수도 오름과 함께 화산 활동의 영향으로 나타난 특징이다. 용천수는 대수층(투수층이 좋은 지층)을 따라 흐르는 지하수가 암석이나 지층의 틈을 통해 지표면으로 솟아나는 물이다. ‘살아 샘 솟는 물(涌泉)’이란 뜻으로 ‘산물’ 또는 ‘나는 물’이라 하였다. 연간 18도 안팎의 일정한 수온을 유지하는 제주도에서는 ‘생명수’라고도 일컬었다. 그만큼 용천수를 중심으로 해안가 마을은 생활문화가 형성되었고, 생활 용수로써의 유용한 자원으로 이용되었다.



[그림 35] 용천수 분포⁷²⁾

72) 박원배(2006), 「제주도 용천수의 이용과 보전 관리 방안」, 『제주발전연구』, 10호, pp.157-172.

그러나 1970년대 상하수도 보급과 개발, 공항 건설, 중산간 개발로 현재 이용 중인 용천수는 전체 661곳의 30.3%에 해당하는 200여 곳이며, 460여 곳은 이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남아있는 용천수의 수량도 많이 줄어들어 쓰이지 않고 있다.⁷³⁾ 도두동의 용천수도 서귀포시 예례동의 ‘논짓물’, 광지과물해변의 ‘과물’, 서귀포 천지연 폭포의 원류인 ‘숨반천’, 외도동의 월대천 등과 함께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용천수이다. 2000년대 이후 점점 사라져가는 용천수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진행이 되었다. 용천수를 중심으로 제주시 용담동-도두동 해안도로변 생활문화유적의 잔존실태에서는 해안도로변에 위치하는 다끄내, 어영 및 몰래물 마을의 생활문화유적의 잔존실태를 검토하고 보전의 필요성을 고찰한 내용에서 제주도 용천수 수변공간이 가지는 의미와 가치를 분석 한 연구⁷⁴⁾와 제주도 용천수의 수질학적인 가치와 용천수 분포지역, 사라져가는 용천수의 보전관리 방안을 연구⁷⁵⁾한 예 등 보전에 관한 연구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용천수의 보존은 어려워져 갔다. 이는 이주민과 관광객 증가에 따른 용수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 그로 인한 과도한 지하수 관정 개발, 환경오염 및 쓰레기 증가, 잠재 오염원 증가 등이 그 원인으로 지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천수 보존을 해야 하는 이유는 용천수는 단순한 물만의 의미를 지닌 것이 아니라 제주도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원이며, 전통적인 선조들의 참된 지혜와 마을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었던 중심에 있음을 엿볼 수 있는 자원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용천수가 풍부하였던 도두동은 그 쓰임에 있어서 생활과 직접적인 가치와 중요성을 간직하고 있다. 그런면에서 지자체에서도 용천수 수량·수질 자연성 회복, 건전한 용천수 이용 문화 정착, 용천수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용천수의 역사문화 가치 발굴 스토리텔링 등 용천수 가치를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하여 도두동에 현존하는 용천수를 중심으로 마을 탐방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한다. 아울러

73) ‘연합뉴스’, (2019. 3. 21.) “제주 용천수 보존방향 모색 토론회”, <https://www.yna.co.kr>. (검색일: 2023. 4. 12.)

74) 정광중(2011), 「제주시 용담동-도두동 해안도로 생활유적의 잔존 실태」, 『한국사진지리학회지』, 21(4), pp.58-68. / 정광중(2016), 「제주도 생활문화의 특성과 용천수 수변 공간의 가치 탐색」, 『국토 지리학회지』 50(3), pp.253-270.

75) 박원배(2006), 「제주도 용천수의 이용과 보전관리 방안」, 『제주발전연구』, 10호, pp.157-172.

② 학습자료: 도두동 자원이 존재했던 지명에 대한 제주어

<표 5> 도두동 자원이 존재했던 지명에 대한 제주어⁷⁷⁾

지명, 위치	의미
보릿조배기	물 속에 마치 새알심을 잘라 흩뿌린 것같은 여러개의 여
송곳여	송곳처럼 부리가 어긋한 여
도리출레	바위가 길게 내린 꼬리
큰케, 족은케	도두동 동북쪽 바닷가에 위치한 굴
피기올래	고기들이 잘 다니는 골목
다금바리어	다금바리가 사는 여
섯빌레	마을 서녘에 두르고 있는 바위섬
물들인 머새	다호 남쪽의 소나무밭. 머새는 동무더기와 잡초로 덮인 불경지
썩은바위	도두봉 서녘 기슭의 화산석
망한이왓	광산이씨의 집터
진빌레(원)	땅 속 바위가 길게 누워있던 마을 서녘에 있던 밭. (동쪽에 위치한 원)
섯빌레	마을 서쪽에 있던 빌레. ‘빌레’는 돌들이 넓게 퍼져있는 곳.
동카름	동쪽 마을 안
노리는 물출리	영물바닷가의 물꼬리
왕들	마을 앞 바닷가에 있던 큰 바위
작대기위영	신사수동 마을 입구 동쪽 밭
안위영	신사수동 진입로 서녘 덧밭
작대기위영	흘캐 길옆 비석거리 동쪽 밭

76) 한림화 외 2명 공저(2002), 『섬의 머리마을 도두동』, 제주: 반석출판사, pp.17-39.

77) 위의 책, pp.37-49.

③ 도두동 탐방 교육지도안

대상	초등5~6학년	일시		장소	도두동
주제	도두동의 자연·문화 자원의 가치			관련 영역	사회(지리)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두동의 자연·문화 자원에 대해 알 수 있다. · 도두동 용천수의 현존 상황과 보존 방법에 대해 생각해본다. 				
단계	활동내용		시간	자료 및 유의점	
준비단계	학습자료를 통한 도두동의 자연·문화 자원 분포에 대한 동선을 파악한다.		10분	옛 약도, 도두동 네이버 지도, 표시할 수 있는 펜과 노트	
자연유산 탐구활동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용천수 따라서 마을 탐방 : 죽은물→생이물→오래물→ 펼랑물→마구물→지름물 →포제물→흘개→영물 : 용천수의 용도와 기능을 알 수 있다. 2) 오름허릿당, 포제단 : 기능과 역할을 이해한다. 3) 큰개, 작은개 : 현존하는 자원의 훼손 정도를 파악하고 그 기능에 대해 알 수 있다, 4) 사수마을당 : 필요했던 이유를 생각하며 자연에 순응하는 선조들의 삶을 이해한다. 5) 왕돌, 할망당, 방사탑 : 기능과 역할을 알 수 있다. 		40분		
정리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보호 활동 · 체험한 내용에 대해 정리하고, 자연유산의 보존 방법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1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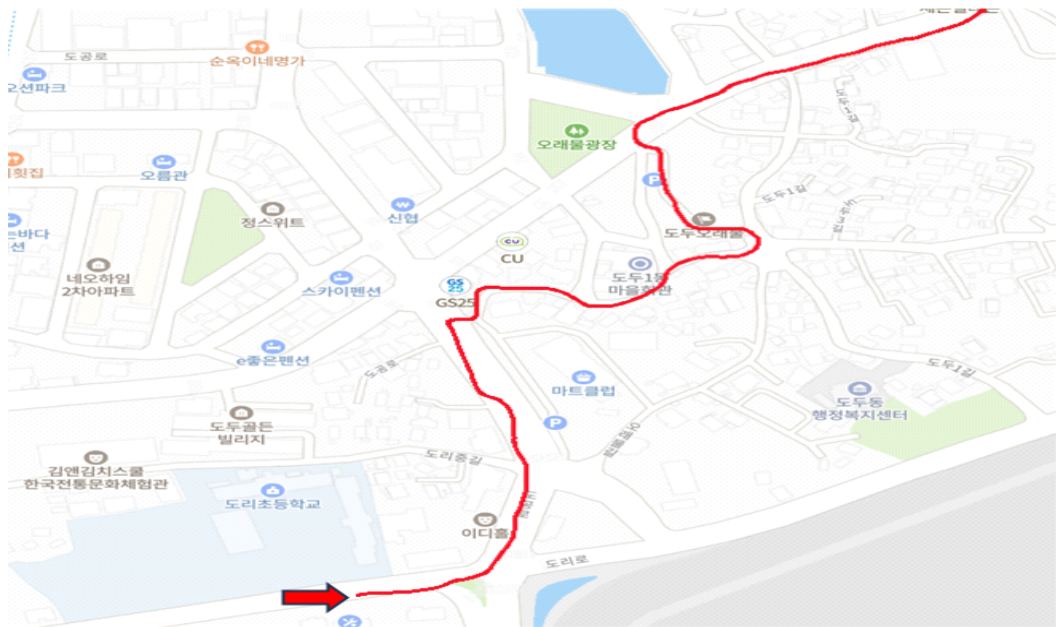
④ 활동 학습지

1. 해안가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된 이유와 용천수와의 관계
예: ① 형성된 이유: ② 용천수의 다양한 쓰임- 생활용수, 농업용수 등 ③ 제주 생활에 끼친 영향:
2. 남아있는 자연·문화유산을 알아보고, 유산으로서의 가치와 보존 방법에 대해 논의해 보기
예: ① 남아있는 자연·문화 자원: ② 보존해야 하는 이유: ② 보존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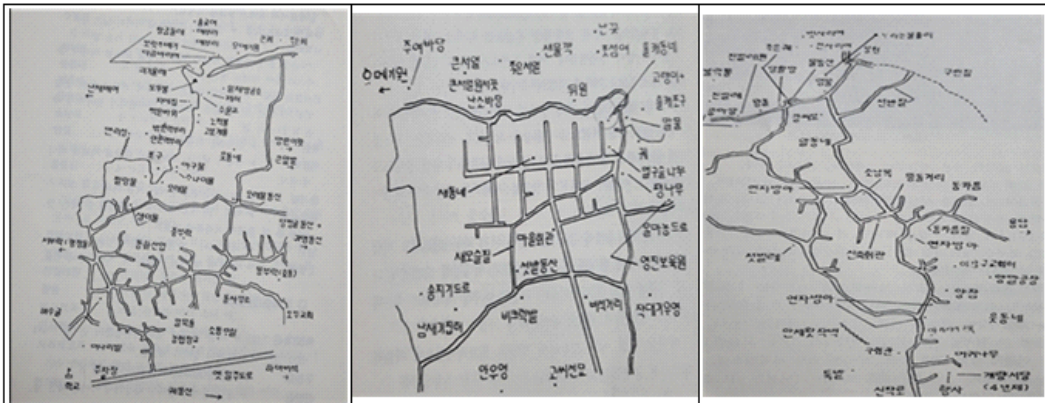
3. 옛 약도(학습자료 ①)와 네이버 지도를 통해 자연.문화 자원의 위치를 표시하고, 그 기능과 역할에 대해 알아본다.

위치표시) 생이물, 오래물, 마구물, 오름허릿당, 포제단, 큰케, 작은 케, 신(新)사수마을당, 왕돌, 할망당, 방사탑, 영물, 소금빌레

(① 네이버 지도: 이 외에 도두동과 해안도로로 이어지는 지도는 직접 준비한다.)



(② 앞서 제시하였던 학습자료①을 확대하여 준비하고, 학습자료②를 익히도록 한다.)



(2) 도두동 역사체험

도두동의 역사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그것을 남아있는 유적지 즉, 신석기 주거지 터, 직접 눈으로 확인은 할 수 없으나 공항 활주로 밑에 묻혀 있는 4·3 유해들, 태평양 전쟁 때 파놓은 진지동굴, 도두봉 정상에 봉수대를 통해 역사적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첫째, 한반도의 역사적 연대를 보면 일반적으로 신석기시대의 시작은 대략 기원전 8000~12000년경으로 보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한국 사학계는 기원전 4000~3000년경에 한반도에 농경(신석기 혁명)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⁷⁸⁾ 도두동의 설촌 유래를 앞서 언급했듯이, 신석기시대로 추정된다. 이는 유물은 물론 발견된 곳이 주거지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이 지금까지 발견된 신석기 유적 약 100여 곳 중 주거지가 발견된 예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용담동과 연결되는 도시의 중심부였을 가능성을 두고 주변 마을을 계속 연구하는 중이다.⁷⁹⁾

둘째, 설촌 유래를 따라서 공항 활주로에서 제주도 4·3사건에 대해 설명한다. 1947년 3월 1일 기념일 시위에서 벌어진 좌우 세력간의 우발적 충돌이 확대된 후, 1948년 4월 3일 무장 봉기한 남로당과 시위대의 진압 과정 및 한국전쟁 이후의 토벌 작전을 통해 3만여 명의 도민이 학살당했다. 1954년까지 진행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무고한 주민들이 죽고, 토벌 작전을 통해 3만여 명의 도민이 학살당했다. 이 사건은 종결 이후 금기시되다가, 1990년대에야 역사적으로 재조명되어 2000~2007년 진상 조사와 피해자 파악이 실시되었다.⁸⁰⁾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될 역사적 교훈을 알 수 있도록 한다.


셋째, 도두봉의 진지동굴에 대한 체험을 통해 역사를 바로 알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도두봉 정상에 있었던 고사포대와 저수조에 대한 설명, 봉수대에 대한 기능과 역할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역사체험을 통해 역사적 의식이 정립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78) 나무위키, <https://namu.wiki>.(검색일: 2023. 4. 28.)

79) 위의 자료

80) 다음백과, <https://100.daum.net>.(검색일: 2023. 4. 28.)

① 도두동 역사탐방 교육지도안

대상	초등5~6학년	일시		장소	도두동
주제	도두동의 설촌유래 및 역사탐방			관련 영역	사회(지리)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두동의 설촌 유래를 설명할 수 있다. · 조선시대 봉수대의 역할, 일제 강점기의 진지동굴, 43사건, 등 도두동에 남아 있는 역사적 사실을 알 수 있다. 				
단계	활동내용		시간	자료 및 유의점	
준비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해 온 신석기 유적과 진지동굴, 4·3유적지에 대한 내용을 발표한다. 		30분	학습활동지, 학습자료	
학습안내	<p>도두동의 역사에 대해 설명한다.</p> <p>1) 신석기시대 유적지를 방문하고, 발견된 유물의 종류 및 위치에 대해 알 수 있다.</p> <p>2) 도두봉에 위치한 진지동굴을 확인하고, 건설된 시대와 배경에 대해 알 수 있다.</p> <p>3) 도두봉 정상에 있었던 고사포와 저수조의 쓰임과 형태에 대해 알 수 있다..</p> <p>4) 도두봉을 비롯한 관방시설이 만들어졌던 위치와 종류 및 기능을 알 수 있다.</p>		50분		
정리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보호 활동 · 체험한 내용에 대해 정리하고 도두동의 역사를 통해 교훈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다. 		20분		

② 활동학습지

1. 도두동에 처음으로 사람이 살았던 시대에 대해 알아본다.	
예) 신석기 시대:	
	
2. 거주지에서 발견된 유물들의 종류와 쓰임새에 대해 알아본다.	
(예: 무문양토기편과 점철문토기편, 마제석기, 타제석기 등)	
① 유물모양 그리기, 쓰임새:	
② 사진으로 찍은 유물, 쓰임새:	
3. 도두봉에 진지동굴이 만들어진 시대와 이유에 대해 알아본다. 현재의 보존 상태에 대해서 조사하고, 앞으로의 보존 방법에 대해 논의해본다.	
예) 도두봉에서 발견된 진지동굴:	현재 보존상태:
	
4. 일제강점기, 4·3사건, 6·25전쟁과 같은 어려운 시대를 견딘 선조들의 지혜와 교훈은 무엇인지 정리해 본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시작은 근대화와 산업화과정에서 해체된 제주도 해안가 마을에 대한 안타까움에서 비롯되었다. 도두동은 공항 건설로 전국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사라진 마을의 예이며, 그 흔적을 간직하던 주민들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마을이 되고 있다. 이는 단지 생태환경의 변화뿐만 아니라 척박한 제주도에 슬기롭게 살아온 선조들의 삶에 대한 정체성이 사라지는 것과 자연에 순응하며 생활해 온 상부상조의 미풍양속이 존재하던 마을공동체가 무너지는 결과를 낳았다.

이를 통해 본 연구를 요약해보자면, 첫째, 세계적인 기후 위기에 따른 위협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생태환경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미래의 지속 가능한 삶과 그 대안의 하나로 생태마을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이를 우리나라의 환경과 접목시켜 방법을 찾으려고 하였고, ‘생태관광지정제도’를 통한 생태마을의 사례를 통해 도두동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둘째, 제주시 도두동의 생태환경 변화과정을 크게 네 시기로 구분하여 옛 문헌과 현지답사를 통하여 정리하였다. 또한 현존하는 자연·문화 자원을 조사하였다. 마을이 공항 건설과 개발로 파헤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주도 고유의 생활양식이 남아 있는 해안가 마을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보존해야 할 타당성을 제시하였다. 셋째, 이를 위해 교육적 활용방안을 제시하였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마을공동체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마을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까지 연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제언을 한다면, 첫째, 도두동이 ‘생태관광지정제도’를 통하여 생태마을로 지정되기를 바란다. 바다를 낀 해안도로와 제주도 독특한 지형인 오름, 선조들의 생활문화를 알 수 있는 용천수, 당, 방사탑, 등이 여전히 남아 있고, 관광객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이와같이 귀중한 자연·문화 자원을 간직하고 있지만 언제 사라질지도 모를 위기에 처해 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외부자본의 유입, 해양 쓰레기 증가, 환경오염으로 이전보다 훼손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보존 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둘째, 마을공동체 중심으로 마을 자원에 대한 역량 강화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역주민 중심의 ‘도두동 지킴이’를 발족하기를 제안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미 마을공동체가 부분적이거나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라 지역주민 중심의 구성은 그리 어렵지 않으리라 예상된다. 이는 말 그대로 도두동의 자연·문화 자원을 보존하고, 더 이상의 훼손을 막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이다. 이미 2017년에 정보화 마을 주최로 생생 문화해설사 양성의 일환으로 도두봉 역사탐방을 진행한 바 있다. 이는 제주도 전체에서 진행하였고, 정작 도두동 주민보다 외부인들의 참여가 많았으며, 단발성이라 그 이후 이어지지는 못하였다. 이와같이 도두동에서 개최하였던 축제나 행사들을 재검토하고 장·단점을 파악하여 적절한 방법을 연구하는 것도 ‘도두동 지킴이’의 역할이다. 마을 사업은 항상 시작이 어렵고 중요하다. 모두의 의견을 일치해내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수 있으나, 이 또한 이 시점에서 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셋째, 제주도 해안가 마을은 예로부터 선조들의 삶과 지혜가 녹아들어 있는 귀중한 생활공간이다. 이를 보존하기 위한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한 책임이며, 지속 가능한 삶의 대안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제주도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 해안가 마을의 자연·문화 자원에 대한 변화과정을 고찰하여 원형 경관을 비교 분석하며, 해안가 마을의 깊이 있는 역사를 기록하고 보존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지금도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국책사업이나 개발이 제주도 마을공동체를 위협하고 있다. 강정 해군기지나 제2공항 건설은 그 예를 증명해주고 있다. 단지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역주민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도두동의 사례와 별반 다르지 않다. 또한 생태환경이 훼손된다면 복원하기 어렵다는 것도 도두동이 증명해 주고 있다. 미래의 답은 과거에 있다는 말과 같이 가속화되는 현대사회의 흐름 속에서 생태환경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생활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할 시기이다. 아울러 인구 절벽의 심각성을 겪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는 인간성 회복을 위한 마을공동체 복원이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해 본다.

참 고 문 헌(參考文獻)

1. 단행본 및 번역서

- 강호정(2005), 『다양성을 엮다: 파국앞에 선 인간을 위한 생태계가이드』, 서울: 이음.
- 김동진(2017), 『조선의 생태환경사』, 서울: 도서출판 푸른역사.
- 김용제 · 권장우 외 10명 공저(2020), 『제주도 지질여행』, 대전: 한국지질연구원.
- 도두동지 편찬위원회(2007), 『도두동지』, 제주: 으뜸출판.
- 도리초등학교 총동창회(2002), 『도리초팔십년사』. 제주: 으뜸출판
- 몰래물향토지 발간 위원회(2000), 『몰래물향토지』. 제주: 한강인쇄소
- 박호성(2012), 『자연의 인간 인간의 자연』, 서울: 후마니타스.
- 이재민(2019), 『마을공동체 만들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최현 · 김자경 · 윤여일 공저(2019), 『제주사회의 변동과 공동자원』, 과천: 진인진.
- 최현 · 정영신 · 윤여일 공저(2017), 『제주의 마을과 공동자원』, 과천: 진인진.
- 한림화 · 김경식 · 오성찬 공저(2002), 『섬의 머리 마을 도두동』, 제주: 반석출판사.
- 홍성태(2004), 『생태사회를 위하여』, 서울: 문화과학사.
- 홍성태(2021), 『공동자원 공동체 지역혁신』, 과천: 진인진.
- Harrari, Y. N.(2014), 『Sapiens: a brief history of humankind』, 조현욱 역
(2015), 『사피엔스: 유인원에서 사이보그까지, 인간 역사의 대담
하고 위대한 질문』, 파주: 김영사.
- Hughes, J. D.(2022), 『환경사란 무엇인가?』, 최용찬 역, 서울: 도서출판 엘피.
- Joubert, T.Trager, L. 공저,(2018), 『세계 생태마을 네트워크』, 넥스 트젠코리
아에듀케이션 역, 서울: 열매하나.
- Lovelock, J.(2008), 『가이아의 복수』, 이한음 옮김, 서울: 세종서적.
- Radkau, J. C.(2022), 『생태의 시대』, 김희상 옮김, 파주: 주식회사 열린책들.
- Wallace-Wells, D.(2020), 『2050 거주불능 지구』, 김재경 역, 서울: 추수밭.

2. 학술지

- 강영은 외 5명 공저(2010), 「농촌원형경관의 문화재적 가치 속성 및 중요도 연구」, 『농촌계획』, 16(4), pp.117-129.
- 고유경(2022),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역사교육 환경사와 역사교육의 연대를 위한 제언」, 『역사비평』, 0(138), pp.158-183.
- 금인숙(2014), 「사회이론과 생명살림의 새로운 대안과학-생태환경농업 중심으로」, 『담론 201』, 17(1), 한국사회역사학회, pp.39-76.
- 김육훈(2022), 「생태환경사 수업을 위한 교재 구성 논의 시론」, 『역사와 교육』, 22, 역사교육연구소, pp.25-49.
- 김자경.최현(2020), 「공동자원을 활용한 농촌마을 만들기-제주 하례1리 효돈천 생태관광」, 『지역사회연구』, 28(1), pp.58-80.
- 김정분(2011), 「역사교육에서 환경사 교육의 모색」, 『역사와 역사교육』, 22, 웅진사학회, pp.143-166.
- 김태연(2022), 「생태환경운동의 가이아와 러브록의 가이아의 간극: 러브록의 핵에너지 개발 담론 중심으로」, 『인간·환경·미래』, 29, 인제대학교 인간환경미래연구원, pp.125-156.
- 김홍주·박성철(2023), 「마을 공동체 활성화 방향성 모색 연구」, 『지방정부연구』, 26(4), pp.1-34.
- 박성권.김선영.이헌중 공저(2018), 「컬포츠를 활용한 선사체험 하이킹의 교육적 활용방」, 『고문화』, 92, 한국대학박물관협회, pp.111-138.
- 박원배(2006), 「제주도 용천수의 이용과 보전관리 방안」, 『제주발전연구』 10호, pp.157-172.
- 방지원(2022), 「역사교육에서 생태환경적 접근의 의미」, 『역사교육연구』, 44, pp.143-188.
- 심상섭(2011), 「아산 외암마을의 토속경관의 문화유산적 가치」, 『문화재』, 44(1), 국립문화재연구소, pp.30-51.
- 이은주(2020), 「전통마을숲의 생물문화 다양성 발현 요소 및 교육적 의미 탐색」, 『환경교육』, 33(1), 한국환경교육학회, pp.112-128.

- 정광중(2011), 「제주시 용담동-도두동 해안도로변 생활유적의 잔존 실태」, 『한국사진지리학회지』, 21(4), pp.58-68.
- 정광중(2016), 「제주도 생활문화의 특성과 용천수 수변공간의 가치 탐색」, 『국토 지리학회지』, 50(3), pp.253-270.
- 정광중(2018), 「선흘곶자왓 동백동산 탐방로 주변의 학습자원 발굴과 학교 교육의 활용을 위한 방향성 탐색」, 『탐라문화』, 58,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pp.249-285.
- 최현(2017), 「선흘1리 마을 만들기와 공동자원지속 가능성」, 『Eco』, 21(1), pp.41-69.
- 최현·김선필(2016), 「공동자원의 지속 가능성과 마을 만들기 전략」, 『공간과 사회』, 26(4), pp.267-295.
- 하정숙(2007), 「경기 서해안 무의도 민속의 해체」, 『중앙민속학』, 12(0), 중앙대학교 한국문화 유산연구소, pp.63-95.
- 한면희(2010), 「현실 녹색정책의 이념과 생태주의 사상」, 『동서사상』, 8, 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 pp.161-184.

3. 학위논문

- 강용성(2009), 「생태민주주의와 공동체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권영수(2023), 「장소애착이 마을공동체 사업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도현(2021), 「생태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 탐구: ‘저지리’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범훈(2014), 「지속 가능한 제주 관광을 위한 지오 투어리즘 활성화 방안」,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p.157-167.
- 박주연(2017), 「갈등 당사자의 프레임에 관한 연구: 제2공항 입지 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성민기(2021), 「지역사회 활동의 주민참여활성화와 마을문화자원의 활용 가치: 제주도 저지리 및 한동리마을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 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병용(2009), 『지속가능 유기농업과 생태적 삶을 위한 생태마을 조성: 포항시 죽장면 상옥리를 사례로』, 단국대학원 생명과학대학원 석사학위.
- 오재호(2010),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제주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야외학습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학 석사학위논문.
- 위서연(2015), 「세계자연유산의 지형경관별 고찰과 지리교육의 활용방안」,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지리교육전공석사학위논문.

4. 기타 자료

- 고태성(2021.03.14.), 구술증언, 도두1동 마을회 사무국장 (45세, 도두1동 거주).
- 김경돈(2022), 사진자료 제공 (도두동거주, 정보화마을 위원장, 남).
- 김승규(2018), 「도두동의 역사와 문화유적 재조명」, 제주학연구소 구술사연구회, pp.1-14.
- 김승규(2022.4.15.), 구술증언 (신성마을 거주. 남 65세).
- ‘노컷뉴스’ , (2016. 11. 8), “백종원에 판 제주 마을 재산, 1억씩 나눠먹었다.” , <https://www.nocutnews.co.kr/news> (검색일: 2023. 2. 10.)
- 다음백과, “4·3사건” ,<https://100.daum.net> (검색일: 2023. 5. 23)
- 부산광역시 강서구 문화관광부, <https://www.bsgangseo.go.kr/visit> (검색일: 2023. 3. 10.)
- 섬의 정보화 마을 www.invil.org (검색일: 2023. 3. 12.)
- ‘연합뉴스’ , (2015. 2. 12.), “외국인, 작년 여의도 2배만 한 제주도 땅 사들였다.” <https://www.yna.co.kr/view> (검색일: 2023. 2. 10.)
- ‘연합뉴스’ , (2019. 3. 21.), “제주 용천수 보존방향 모색 토론회 “ , <https://www.yna.co.kr> (검색일: 2023. 4. 12.)
- ‘연합뉴스’ , (2019. 3. 21.), “지속 이용 가능한 용천수 관리 체계 구축해야” , <https://www.yna.co.kr/view> (검색일: 2023. 4. 30.)

우리나라 석기시대, <https://namu.wiki/w/>, (검색일: 2023. 5. 15.)
제주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http://www.jejumaeul.or.kr> (검색일: 2023. 3. 14.)
제주생태관광협회, <https://www.jejuecotour.com> (검색일: 2023. 1. 1.)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http://www.visitjeju.or.kr> (검색일: 2023. 3. 10.)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과, <http://www.jeju.go.kr/join> (검색일: 2023. 3. 4.)
제주학연구센터, <http://jst.re.kr/main.do> (검색일: 2023. 4. 1.)
제주시 행정구역, <https://www.jejusi.go.kr>. (검색일: 2023. 4. 8.)
제주시 도두동 위치, <https://map.kakao.com>. (검색일: 2023. 3. 1.)
환경부, <https://www.me.go.kr/home/web/main.do>, (검색일: 2023. 3. 12.)
환경부, “생태마을 현황”, <https://www.me.go.kr>. (검색일: 2023. 3. 14.)
‘한겨레’, (2009. 10. 22.), “제주 도두동 ‘신석기 주거지’ 첫 확인”,
<http://www.hani.co.kr> (검색일: 2023. 4. 5.)

【Abstract】

Value of Eco-village heritage and Utilization plan with the resources - Focus on Dodudong in Jeju city -

Sun-yeon Jung

Department of Natural and Cultural Heritage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Social Education

Supervised by professor Seung-Hee Jang

Global climate change is accelerating the crisis of human beings as well as the ecological environment, and is sending warnings in various areas today. The researcher have searched the reason of the slow practice in basis of modern society even though the universal environmental declaration and agreement to overcome this. Modern society is characterized in family structure, widespread individualism due to excessive competition, destruction of the ecological environment caused by selfishness, and climate change. Especially, eco-environmental destruction and climate change can be predicted that the space menkind live will be disappeared sooner or later.

The researcher(I) have suggested on this problem of seriousness of crisis and change of the modern eco-environment in chapterⅡ, and as an alternative to this, the background and current status of the emergence of ‘creating an eco-village’ were examined. As an alternative to the eco-environmental change and sustainable life in the world, making eco-village which has started since 1960’s in Europe was suggested a making eco-village which is one of contexts of Habitat Ⅱ(The Second United

Nations Settlements) that was held in Istanbul in 1996 as an alternative. It has spread to the world and influenced on Republic of Korea as well. First 'Making an eco-village' was started at country side that has low birth rate, regional, natural environment change has brought many problems. At the long run, This research appeal to the process of running and settling 'a designating eco-touristic system' to utilize a village community and supplement the system.

Based on this system The researcher(I) has studied the history and status of resources of Dodudong in Jeju city as an Eco-village. I have found out the reason to preserve the village resource and recover the community through 'Ecotourism designation system'. Especially Dodudong has been composed to be new village after completely dismantled by airport construction and development. It is difficult to find an example anywhere in the country. Regarding to this I have studied the eco-environmental change and history of Dodudong by 4 periodical parts. Through this process I have analysed and compared the change and disappearance of natural · cultural resources that was used to be existed in the process of a village change. Also, present natural · cultural resource have been studied.

In chapter IV I have suggested the way to use it for educational usage and community recovery with resources in order to preserve and succeed the village resource that is appearing now. If the village autonomy capacity is cultivated and continuously inherited I think it can an alternative to prevent from more damage.

So, the researcher(I) organized the research by period through field trips and focusing on village magazines, interview with villagers. During the research I had some problems because there are many immigrants and foreign residents, but I tried to approach to connect the village community. And I also try to record the connection with the local autonomy for systemic support through an interview with people who are related with the local

office.

I hope that this research will be used so that these parts can be used as data to connect coastal villages in Jeju Island so that the ecological environment and village community can be protected from reckless development. Furthermore, based on the case of Dodu-dong in this research, I also hope to reflect on the development of the second airport and mid-mountainous area. In addition, awareness of the ecological environment and environmental problems, and interest in Jeju's living culture and cultural heritage assets will be expanded.

Key words: Ecological environment. Ecotourism designating system, Eco-village, Dodudong, nature · cultural resource